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篇의 治方에 대한 文獻考察

具滋權·金聖勳*·金漢星**

I. 緒 論

水氣라는 말은 浮腫 또는 水腫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病因으로 볼 때는 水氣라 하고 症狀으로 볼 때는 水腫이라고 한다¹⁾. 따라서 水氣病은 水氣가 泛溢하거나 留聚되어 周身, 皮膚 或은 腹部에 腫脹을 일으키는 病症으로 腫脹病的 範疇에 屬하는데, 水腫과 氣脹의 다른 病情을 갖고 있다.²⁾

水氣라는 名稱은 《素問·評熱病論》³⁾篇에 “諸有水氣者 微腫先見于目下也”라 하여 최초로 言及되었고, 《素問·陰陽別論》⁴⁾에서는 “三陰結, 謂之水”라 하고, 《素問·水熱穴論》⁵⁾에서는 “肺爲喘呼, 腎爲水腫”라 하여 內經에서는 “水氣” “水” “水腫” 등으로 言及되어 있으며, 水氣病의 形成 病理에 대하여 《素問·水熱穴論》⁶⁾에서는 “腎者至陰也, 至陰者盛水也, 肺者太陰也, 少陰者冬脈也.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皆積水也”, “腎何以能取水而生病? …… 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하여 肺腎의 機能損傷으로 인해 水腫이 發生함을 言及하였고, 《素問·陰陽別論》⁷⁾에서는 “三陰結, 謂之水”, 王冰註에서 “三陰結, 謂脾肺之脈俱寒結也. 脾肺寒結, 則氣化爲水”라 하여 營衛之源인 脾와 營衛의 散布를 맡고 있는 肺가 寒氣로 인해 營衛의 循環이 障礙를 받을 시에 浮腫이 生成됨을 말하였다. 또한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한 것을 볼 때, 內經에서는 水를 主管하는 臟腑가 脾·肺·腎 三臟과 三焦, 膀胱등이고 水氣病의 形成또한 이들 臟腑의

機能失調로 誘發됨을 언급하였고, 水氣病의 治療에 대해서는 “開魂門, 決淨府, 去菀陳莖”라 하였다.

《金匱要略》은 漢代 張仲景의 著書로 《傷寒雜病論》중 雜病의 部分이다. 그 學術思想은 《傷寒論》과 같고, 內經의 理論을 基礎로 辨證論治의 方法爲主로 提示하여 千백여년 동안 실제 臨床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本書에서는 津液의 氣化失調로 인한 病症을 論한 篇으로 水氣病脈證治方并治篇, 痰飲咳嗽病脈證并治篇과 消渴小便利淋病脈證并治篇이 있는데, 痰飲咳嗽篇은 痰飲病을 痰飲, 懸飲, 溢飲, 支飲으로 나누어 證治를 설명하였고, 消渴小便利淋病篇에서는 小便不利와 淋病등 水液代謝와 관련된 病證에 대한 證治를 언급하고 있다. 著者가 考察하고자 하는 水氣病篇에서는 水氣病을 風水, 皮水, 正水, 石水, 黃汗으로 나누어 각각의 脈證을 言及하고, 10개의 處方으로 각 處方이 主治하는 症狀을 말하였다. 이에 著者는 本篇에 나타난 處方에 대해 各 註家의 註釋을 比較 考察하여 각 處方의 證에 대해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먼저, 金匱要略에 대한 歷代 研究에 대한 언급

1. 김동일 의, 동의학사전, 여강출판사, 1988, 서울 p.580
- 2.李克光, 金匱要略譯釋, p.411
- 3.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4. 上揭書
5. 上揭書, p.213
6. 上揭書, p.213
7. 上揭書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經穴學敎室

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譚日強이 지은 《金匱要略淺述》의 序文에 잘 나와 있으므로, 이를 引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金匱要略》原書는 早期에 散失되었다가, 宋代에 이르러 翰林學士 王洙가 發見하여, 林億等의 校訂을 거쳤으나, 그 중에 殘缺錯誤된 부분이 매우 많아, 傷寒論에 비해 읽기 어려워, 歷代로 傷寒論에 대한 注家는 白數十家가 있으나 金匱要略은 數十家에 不過하다.

編註의 方式은 原文에 根據하여 注釋을 다는 方法으로 清代의 《醫宗金鑑》, 尤在涇의 《金匱要略心典》이 있고, 自己의 著作中에 金匱要略의 條文이나 或은 方劑에 闡述하는 것은 喻嘉言의 《醫門法律》, 張路玉의 《張氏醫通》 등이 있고, 各家의 註解를 모아 平注를 한 사람은 丹波元簡의 《金匱玉函要略輯義》과 丹波元堅의 《金匱玉函要略述義》 등이 있다. 아래의 표는 《金匱要略》 注釋書로서 時代順으로 定理하였다.

著者	書名	年度
趙以德	金匱方論衍義	1368
徐忠可	金匱要略論注	1671
程云來	金匱要略直解	1673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1687
沈明宗	金匱要略編注	1692
魏念庭	金匱要略方論本義	1720
尤在涇	金匱要略心典	1729
吳謙等	醫宗金鑑·訂正金匱要略注	1742
黃坤載	金匱顯解	1756
陳修園	金匱要略淺注	1803
陳修園	金匱方歌括	
唐容川	金匱要略淺注補正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1806
章虛谷	醫門棒喝·傷寒論本旨	1825
丹波元堅	金匱玉函要略述義	1842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1872
趙穎甫	金匱要略發微	1931
孫鼎宜	孫氏醫學業書六種 ·傷寒雜病論章句	1932

最近에는 西醫의 理論으로 解析한 사람도 있고, 通俗的인 言語로 釋譯하기도 하고, 綜合하는 方式으로 概述한 경우도 있는데, 現代에 古代 注家의

說을 引用하고, 自身의 按解를 붙여 發刊한 書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본 書籍들은 대부분 본 論文에 引用되었다.

著者	書名	著者	書名
李克光, 張家禮	金匱要略譯釋	文棣 校注	金匱要略方論
李克光	金匱要略	楊宏仁	金匱要略重編
李克光	金匱要略講義	何任 外	金匱要略語譯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楊向輝	金匱要略注釋
成都中醫學院	金匱要略選讀	呂志杰	金匱雜病論治全書
王建平, 史定文 外	金匱要略自學輔導	中國中醫研究院編	正統金匱要略
杜雨茂, 張聯惠	金匱要略闡釋	李文瑞 主編	金匱要略湯證論治
蔣先德	金匱要略	李東建	國譯金匱要略
廖厚澤	傷寒金匱證證詮解		

本 論文의 本論부분의 【病因·病理】부분은 李文瑞 主編의 《金匱要略湯證論治》를 翻譯하여 掲載하였다. 考察에서는 引用하는 注家에 대해 簡略하게 姓만을 기재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姓名	略稱	姓名	略稱	姓名	略稱
尤在涇	尤	徐忠可	徐	魏念庭	魏
吳謙	吳	譚日強	譚	張路玉	張
沈明宗	沈	黃元御	黃	呂志烈	呂
李文端	李	陳靈石	陳靈石	丹波元簡	丹
趙以德	趙	陳念祖	陳念祖		

III. 本 論

越婢湯

【原文】

風水惡風，一身悉腫，脈浮不渴^{<1>}，續自汗出，無大熱，越婢湯主之。

越婢湯方：麻黃 6兩，石膏 半斤，生薑 3兩，大棗 5枚，甘草 2兩

上五味，以水六升，先煮麻黃，去上沫，內諸藥，煮取三升，分溫三服。惡風者，加附子一枚炮。風水加朮四兩^{<2>}。

【校勘】

<1> 《金匱要略心典》에서 “脈浮不渴”은 “脈浮而渴”로 되어 있다.《千金要方·卷七》에는 “分溫三服” 다음에 “覆取汗”三字이 있다.

<2> “風水加朮四兩”에 대해, 《輯義》에서는 《外臺》에 依據하여 皮水가 發生한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

【解釋】

風水病에 惡風하고 全身이 浮腫하며, 脈浮不渴하고, 계속하여 汗出하되, 大熱이 없으면 越婢湯으로 다스린다.

越婢湯方：麻黃 6兩, 石膏 半斤, 生薑 3兩, 大棗 5枚, 甘草 2兩

위의 五味중 먼저 大黃을 물 六升에 넣고 달여 위에 뜬 것을 버리고, 나머지 藥들을 넣어 三升이 되게 달여 세 번에 나누어 溫服한다. 惡風에는 附子(炮)一枚를 加하고, 風水에는 白朮을 四兩 加한다.

【病因·病理】

이 處方은 風水挾熱의 證을 治療한다.

이 處方의 證은 風水이다. 風水라는 것은 風邪가 外部에서 侵襲하여 衛氣를 不足하게 만들고, 肺의 氣機를 失調시켜 正常的인 生理機能인 宣發肅降作用에 문제를 일으켜 水道가 通調하지 못하므로 水濕이 肌表(膚表)에 滯留하게 되어 나타난 것이다. 風水가 表에 있으므로 오슬오슬 추워하고(惡風), 脈浮하게 되고, 風邪가 肺氣를 壅塞시켜 氣機가 失調되어 氣가 水로 化하지 못하므로 全身이 모두 붓게 되고(一身悉腫), 裏에 大熱이 없으므로 渴症을 느끼지 못한다. 病의 根源이 風에 있고, 風은 陽邪로 開泄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汗이 저절로 나고(自汗出), 無大熱이라는 것은 곧 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큰 熱이 없을 뿐 내부에는 熱이 있는 것이고, 風이 外泄作用을 하여 汗이 나도 汗의 滯함이 아직 完전하지 못하며, 熱의 薰蒸도 심하지 않을 뿐이다. 口渴과 不渴에 대해서 《素問·評熱論》에 記載된 “風水者口中乾而渴”과 이 處方論의 “不渴”이라는 內容에 根據해 보면, 이른바 口渴은 風邪가 이미 化熱하였고, 또 이 때문에 津液이 이미 耗傷한 바가 그 이

유이고, 不渴은 裏에 大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에 依據하면 風水는 口渴하거나 혹은 不渴하는 차이가 있다. 以上の 것을 綜合的으로 論述해 보면, 이 處方證은 風邪가 水邪보다 甚하고 挾熱한 것으로 이를 治療함에 水氣를 發越시켜 水道를 通調케 하며, 兼하여 裏熱을 清泄하는 것이 法이 된다.

處方中 麻黃에 生薑을 配合한 것은 陽氣를 發越시켜 表에 있는 水邪를 흐트리기 위함이고, 石膏, 麻黃을 서로 配合한 것은 辛溫한 性味를 辛涼한 性味로 改變시켜서 表를 透達시켜 肺熱을 宣泄시키기 위함이며, 甘草, 大棗는 甘緩한 性질로 和中시켜 麻黃의 發表作用이 지나친 것을 防止하기 위함이다. 모든 藥味들은 서로 協同作用을 일으키며, 아울러 表裏의 水濕을 行케하여 水氣를 發越하고, 겸하여 裏熱을 清泄시킨다.

處方 이후의 加減인 “惡風者炮附子一枚”라는 것은 惡風은 곧 表陽虛로 衛陽이 固密하지 못하기 때문에 附子를 加하여 陽氣를 壯盛시키므로써 水氣를 行하게 하고 汗을 멈추게 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風水加朮四兩”은 裏濕이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에 白朮을 加하여 脾氣가 精氣를 퍼트리게 하므로써 위로는 肺에 上歸하게하여 水道를 通調시키고, 아래로는 膀胱으로 下輸시킨다. 麻黃과 함께 配合하면 表濕을 除去시키면서 表裏가 아울러 行하게 되므로 利水消腫의 作用이 增強된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은 風水가 表邪가 되어 鬱而化熱한 것이니, 즉 風邪가 水邪보다 심하고 挾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處方으로 發汗行水하고, 겸하여 鬱熱을 清泄시켜 治療한다.

防己茯苓湯

【原文】

皮水爲病, 四肢腫, 水氣在皮膚中, 四肢聶聶動者, 防己茯苓湯主之^{<1>}.

防己茯苓湯方：防己 3兩, 黃芪 3兩, 桂枝 3兩, 茯苓 6兩, 甘草 2兩

上五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分溫三服.

【校勘】

<1> 《外臺》에서는 深奧한 例로 引用하여, “療皮水如腫, 水氣在皮膚中, 四肢集集動, 木防己湯”이라 하였다.

【解釋】

皮水の 病은 四肢가 浮腫하고, 皮膚中에 水氣가 있어 四肢의 筋肉이 微弱하게 떨리는 것이니 防己 茯苓湯으로 다스린다.

防己茯苓湯方：防己 3兩, 黃芪 3兩, 桂枝 3兩, 茯苓 6兩, 甘草 2兩

위의 五味를 물 六升으로 二升이 되게 달여 세 번에 나누어 溫服한다.

【病因·病理】

이 處方은 皮水表虛의 證을 治療한다.

이 處方의 證은 脾肺氣虛로 衛陽이 虛滯되어 水濕을 運化와 敷布시키지 못하고, 水濕의 邪氣가 皮膚에 侵入하여 病이 된 것이다.

脾는 四肢를 주관하므로 脾가 병들면 陽氣가 運化되지 못하고 水氣가 四肢로 歸하여 이를 누르면 누른 자국이 남아 있는 고로 “四肢腫”이라 한 것이고; 四肢의 浮腫은 衛陽이 阻遏을 받아 正氣와 邪氣가 서로 抗爭하므로 四肢肌肉이 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四肢蠢蠢動”이라 한 것이고; 皮水는 風邪로 인해 病이 든 것이 아니므로 오슬오슬 춤지도 않고; 그러나, 水濕의 邪氣는 陰에 속하고, 동시에 또 陽氣를 阻滯시키므로 四肢에 溫氣가 없고 또한 渴症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處方證의 특징은 水氣가 風氣보다 甚한 것으로 表가 虛한 風水病이다. 또한, 즉 氣虛水滯의 皮水證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通陽化氣로써 이를 治療하게 되면 表裏가 나누어 症狀이 消滅되게 된다.

處方中 防己의 味는 苦辛, 性은 寒하며, 膀胱, 肺經에 入하여 表에 있는 水濕을 發散시키며; 茯苓의 味는 甘, 性은 平하며, 心肺脾腎經에 入하여 淡滲利濕, 導水下行시키며; 黃芪의 味는 甘, 性은 微溫, 脾肺經에 入하여 溫陽解肌하므로 모두 茯苓의 通陽利水를 도와 裏에 있는 水氣로 하여금 下焦로 이를 배출시키고, 또 黃芪의 固表通陽作用을 돕는다; 甘草는 모든 藥物에 協助하여 補中으로써 黃芪의 補脾作用을 도와 水氣를 제압하며, 또 桂枝의 通陽解肌作用에 協同한다. 모든 藥物은 서로 協助하여 溫陽健脾, 導水下行으로써 通陽化氣의 作用을 차용하여 表에 있는 水濕을 發散시키면 表

裏가 나누어 症狀이 소멸되는 공이 있게 된다.

甘草麻黃湯

【原文】

裏水^{<1>}, 越婢加朮湯主之, 甘草麻黃湯主之^{<2>}.

越婢加朮湯方：方見上, 又內加白朮四兩. 又見脚氣中.

甘草麻黃湯方：甘草 2兩, 麻黃 4兩

上二味, 以水五升, 先煮麻黃, 去上沫, 內甘草, 煮取三升, 溫服一升, 重覆汗出, 不汗, 再服. 慎風寒.

【校勘】

<1> 裏水： “裏水”는 당연히 “皮水”로 되어야 한다. 《脈經》注에서는 “一云皮水”라 하였으니, 裏수가 즉 皮水임을 알 수 있다.

<2> 《外臺》： 兩方に 대해 각각 一條씩 씩여 있다. 一條는 范汪注를 引用하여, “皮水, 一身面目悉腫, 甘草麻黃湯主之.”라 하였다. 一條는 《古今錄驗》을 引用하여, “皮水, 越婢加朮主之.”라 하였다. 注에서는 “已上方并本出仲景《傷寒論》”이라 하였다.

【解釋】

裏水病은 病狀에 따라 越婢加朮湯이나, 甘草麻黃湯으로 다스린다.

越婢加朮湯方：處方은 앞에 言及되었으며, 白朮 四兩이 加하여져 있다. 또한 脚氣에도 言及되었다.

甘草麻黃湯方：甘草 2兩, 麻黃 4兩

위의 二味中 먼저 麻黃을 물 五升으로 달여 위에 뜬 것을 버리고, 甘草를 넣고 三升이 되게 달여 一升을 溫服한다. 服用後 두꺼운 이불을 덮어 쓰고 汗을 낸다. 만약 汗이 나지 않으면 再服한다. 風寒을 조심하도록 한다.

【病因·病理】

이 處方은 皮水에 裏熱을 挾雜하지 않은 證을 治療한다.

이 處方은 水寒之氣가 肺衛를 阻遏하여 肺氣가 不宜하고, 水邪가 皮膚에 滯留하여 능히 外泄되지 못하여 浮腫에 이른 것을 示한 것이다.

위에 論한 바를 綜合的으로 말해 보면, 그 病은 皮水無汗에 속하여 表實의 皮水證이 된다. 그러므로, 이 處方으로써 和中補脾, 宣肺利水시켜 治療한다. 處方 中의 甘草는 和中補脾하고; 麻黃은 發汗

利水한다. 이 두 가지 藥物은 서로 協同作用을 하여 和中補脾, 宣肺利水の 공을 다한다.

方後가 이르기를 “重覆汗出, 不汗, 再服”이라 하였으니, 이 處方證은 마땅히 表實無汗에 속함을 알 수 있으므로 汗法을 써서 治療함이 마땅하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은 皮水無熱證에 그 脈을 내서 水로 하여금 脈을 쫓아 나가게 하면 풀리게 된다.

麻黃附子湯(附 : 杏子湯)

【原文】

水之爲病, 其脈沈小^{<1>}, 屬少陰; 浮者爲風, 無水虛脹者 爲氣, 水, 發其汗即已. 脈沈者宜^{<2>}麻黃附子湯^{<3>}; 浮者宜杏子湯.

麻黃附子湯方 : 麻黃 3兩, 甘草 2兩, 炮附子 1枚 上三味, 以水七升, 先煮麻黃, 去上沫, 內諸藥, 煮取二升半, 溫服八分, 日三服.

杏子湯方 : 未見, 恐是麻黃杏仁甘草石膏湯.

【校勘】

- <1> 《脈經》에는 “脈沈者”中 “脈”字이 없다.
- <2> “宜”字은 모두 “與”로 되어 있다.
- <3> “麻黃附子湯”은 “附子麻黃湯”으로 되어 있다. 또한 《傷寒論·少陰病篇》에는 “麻黃附子甘草湯”으로 되어 있다.

【解釋】

水氣病은 脈沈小하여 少陰에 屬한다. 脈浮하면 風이며, 水邪가 없는데 虛脹한 것은 氣水이다. 發汗을 시키면 낫게된다. 脈沈하면 麻黃附子湯으로 다스리고, 脈浮하면 杏子湯으로 다스린다.

麻黃附子湯方 : 麻黃 3兩, 甘草 2兩, 炮附子 1枚 위의 三味中 먼저 물 七升到 麻黃을 넣고 달여 위에 뜬 것을 버리고, 나머지 藥들을 넣어 二升半이 되게 달여 八分을 一日 三回 溫服한다.

杏子湯方 : 處方은 나와 있지 않으며, 어쩌면 麻黃杏仁甘草石膏湯이 아닌지 모르겠다.

【病因·病理】

麻黃附子湯은 正水證을 治療하고; 杏子湯은 風水證을 治療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正水라는 것은 水腫病으로 脈이 沈小하여 少陰脈에 속하는 것이니 즉 足少陰腎의 陽虛로 능히 化氣行水를 하지 못하고, 水氣가 범람하여 浮腫이 된 것이다. 風

水라는 것은 水病으로 오슬오슬 추워하고 脈이 浮한 것이다. 이것은 곧 風邪가 肺衛를 傷하고, 衛陽이 阻遏을 받아 肺氣가 壅滯하므로 해서 水病을 일으킨 것이다. 그 病邪는 肺에 있으므로 脈은 浮하다. 正水나 혹은 風水를 불문하고 이 두 가지는 마치 그 表에 모두 水氣가 있는 듯하니 모두 發汗法을 使用하면, 즉 “水, 發其汗即已”이라는 設法과 같이 된다. 그러나, 모름지기 주의해야 하는데, 만일 水氣가 表에 있어서 脈象이 沈細하다면, 尙當 腎陽을 되돌아보고 本方의 溫經發汗으로 治療해야 하고; 만일 脈이 浮할뿐 沈細하지 않다면, 尙當 宣肺散邪시킴이 마땅하므로 杏子湯으로 治療한다.

“無水虛脹者, 爲氣”는 文字관계로부터 분석해 보면, 이것은 揶揄法이다. 그러나, 그 內容을 取해 보면, 腹部가 비록 脹滿하나, 실제로는 水가 없으며, 肢體가 腫脹하며, 이를 누르면 누른 자국이 남거나, 혹은 비록 凹陷處가 있다손 치더라도 손을 따라서 元상태로 일어나니, 이것은 無水의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氣脹이라 한다. 그러므로, 水腫과는 아울러 論할 수 없고, 그 證이 비록 水病과 서로 비슷하나, 汗法을 使用할 수 없다. 水腫은 濡고 光亮하며, 이를 누르면 凹陷處가 元상태로 일어나지 못하며, 小便이 元활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上述한 바와 같이 이 處方證은 正水이다. 그러므로, 이것의 汗法과 風水의 汗法에는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腎陽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고로 이를 治療함에 溫經發汗시켜야 한다. 處方中의 麻黃은 腠理를 열어 發汗시켜 表에 있는 水濕을 發散시키며; 附子는 溫經助陽作用으로 腎陽虛를 補하며, 甘草는 健脾和中하고 麻黃의 辛甘한 性味와 配合하여 發散作用을 가지며, 또 附子의 扶陽作用을 도와준다. 이 세 가지 藥物의 協同作用은 溫陽發汗, 化氣行水의 作用을 다한다. 이 處方은 실로 肺, 脾, 腎의 3臟을 모두 돌아본다. 杏子湯 : 이것은 風水를 治療하니, 즉 “脈浮, 宜杏子湯.”이다. 이 處方은 이미 散佚되어 歷代醫家와 당시의 醫家들이 간과한 것이 너무 많았다. 吳謙은 “甘草麻黃湯加杏子”라 하였고; 尤在涇은 麻行石甘湯이라 하였으며; 趙穎甫는 麻杏薤甘湯(《金

匯要略發微》)라 하였으며; 魏念庭은 辨證觀으로 써 “內水濕而外風寒, 其挾熱者, 可用麻行石甘湯也, 如不挾熱者, 莫妙于前言甘草麻黃湯加杏子, 今之三拗湯矣”라 하였다. 지금의 사람인 王庭富氏, 贊成 魏氏의 說로는 만일 風水로 肺熱이 重하고, 發熱 惡風, 浮腫이 있으면서 喘息을 하고, 舌質은 紅色, 舌苔는 薄黃하고 津液은 적으며, 脈은 浮滑하면, 麻行石甘湯을 使用하여 宣肺清熱시키고; 만일 風水로 表裏에 熱象이 없으며, 浮腫이 있으면서 喘息을 하고, 舌質은 淡薄하고 白津潤하며, 脈은 浮緊하다면, 三拗湯을 使用하여 宣肺散水로서 平喘시켜야 한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은 水腫病으로 脈이 沈小한 正水를 治療하는 것으로서 溫經發汗의 方法으로 通陽開竅시켜 水氣를 다스리는 妙劑이다.

蒲灰散

【原文】

厥而皮水者, 蒲灰散主之^{<1>}.

蒲灰散方: 方見消渴中

【校勘】

<1> 《脈經》水氣篇에는 이 條가 빠져 있다.

【解釋】

厥而皮水에는 蒲灰散으로 다스린다.

蒲灰散方: 處方은 消渴中에 나타난다.

【病因·病理】

[淺述]本條論述皮水身腫而冷的治法.

厥而皮水, 卽前第4條皮水身腫而冷的證候. 水在皮膚, 陽氣不能外達, 故厥; 這種厥冷, 與陰寒內盛引起的寒厥不同, 故不用桂附回陽, 而用蒲灰散通利小便, 使水去陽通, 則腫消厥止.

黃芪芍桂苦酒湯(又名: 芪芍桂酒湯)

【原文】

問曰: 黃汗之爲病, 身體腫^{<1>}, 發熱汗出而渴^{<2>}, 狀如風水, 汗沾衣^{<3>}, 色正黃如柏汁, 脈^{<4>}自沈, 何從得之^{<5>}? 師曰: 以汗出入水中浴, 水從汗孔入得之, 宜芪芍桂酒湯主之.

黃芪芍桂苦酒湯方: 黃芪 5兩, 芍藥 3兩, 桂枝 3兩

上三味, 以苦酒一升, 水七升, 相和, 煮取三升, 溫伏一升. 當心煩, 服至六七日乃解. 若心煩不止者, 以

苦酒阻故也.

【校勘】

<1> 《脈經》,《千金》에는 “身體腫”이 “身體洪腫”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옳다.

<2> 《巢源》,《千金》에는 “而渴”이 “不渴”로 되어 있으며, 《脈經》細注에서는 “‘而渴’一作‘不渴’”이라 하였다.

<3> 《巢源》,《千金》에서는 “沾衣”는 “染衣”로 되어 있다.

<4> 《巢源》,《千金》에서는 “脈” 앞에 “其”字가 있다.

<5> 《脈經》에서 “何從得之”는 “問曰: 黃汗之病何從得之”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별도로 一條를 두었다. 趙代에 著述된 俞橋本에는 “藥汁”이 “藥汁”으로 되어 있다.

【解釋】

문기를 黃汗이라는 病은 身體가 腫하고 汗出하며 渴한 것이 風水病과 비슷하며, 땀이 옷을 적서, 그 色이 黃栢汁처럼 노랗고, 脈沈한데, 이러한 黃汗의 病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汗出하고 있을 때에 물에 들어가 沐浴을 하면 때로 水邪가 汗孔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黃汗의 病이 되는 것이니 芪芍桂酒湯으로 다스린다.

黃芪芍桂苦酒湯方: 黃芪 5兩, 芍藥 3兩, 桂枝 3兩

위의 三味에 苦酒 一升과 물 七升을 넣어 三升이 되게 달여 一升을 溫服한다. 마땅히 心煩의 症狀이 나타나니 六七日을 服用하면 心煩이 가신다. 만약 心煩이 멈추지 않으면 藥力을 苦酒가 妨害하고 있기 때문이다.

【病因·病理】

이 處方은 黃汗證을 治療한다.

이 處方證인 黃汗의 形成은 땀이 나는데 목욕하러 들어가 汗液의 排泄이 막히게 된즉 水와 熱이 肌表에서 서로 結滯된 때문이다. 水濕의 內鬱로 營血이 阻遏을 받고, 脾虛로 濕因하여 위로 肺衛를 上犯하면, 營中에서 鬱하여 熱하게 되고, 이 濕과 熱이 서로 薰蒸하게 된다. 그러므로, 熱이 나고, 땀이 나는데 黃色의 끈끈직한 액체가 옷을 적

시며; 脾虛로 氣가 津液을 化하지 못하면 渴症이 나고; 衛氣가 鬱滯되면 능히 水濕을 行消시키지 못하므로 몸이 붓고; 水가 中에 滯留하여 脈絡이 阻遏을 받는 고로 脈이 沈하게 된다.

黃汗과 風水는 서로 비슷한데, 風水는 脈이 浮하나, 黃汗은 脈이 沈하며; 風水는 惡風하고, 黃汗은 惡風이 없으며; 風水의 汗出은 色이 正常인데, 黃汗은 黃色을 띠며 끈적끈적한 액체가 옷을 적신다.

以上에서 論述한 것을 綜合해 보면, 이 處方은 營衛失調의 黃汗證으로 調和營衛, 祛散水濕을 그 治法으로 한다. 處方中 黃芪는 補氣固表하고, 또 表에 있는 水濕을 능히 行하게 하며; 桂枝, 芍藥은 調和營衛하여 鬱遏을 풀어주며; 苦酒는 營分에 入하여 瘀血을 行하게 하고 아울러 모든 藥物을 營分으로 引經시켜서 營分鬱熱을 清泄시키는 效果를 增強시킨다. 모든 藥味들은 서로 協同作用을하여 調和營衛, 祛散水濕의 功을 다한다.

만일 邪氣가 偏盛하면 藥力이 다할 때까지 기다려 經絡이 暢通하게 되면 濕邪가 化하여 그 煩症이 그칠 수 있다. 이것은 즉 이 處方을 服用하여 마땅히 心煩하는데, 服用한지 6~7일이 지나면 곧 풀리게 되니, “以苦酒阻故也”의 이치이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은 陽鬱營血有熱의 黃汗證을 治療한다.

桂枝加黃芪湯

【原文】

黃汗之病, 兩脛自冷; 假令發熱, 此屬歷節. 食已汗出, 又身常暮^{<1>}盜汗出者, 此勞^{<2>}氣也. 若汗出已反發熱者, 久久其身必甲錯; 發熱不止者, 必生惡瘡.

若身重, 汗出已輒輕者, 久久必身調, 調即胸中痛, 又從腰以上必汗出, 下無汗, 腰髕弛痛, 如有物^{<3>}在皮中狀, 劇者不能食, 身疼痛, 煩燥, 小便不利, 此爲黃汗, 桂枝加黃芪湯^{<4>}主之.

桂枝加黃芪湯方: 桂枝, 芍藥 各 3兩, 甘草 2兩, 生薑 3兩, 大棗 2枚, 黃芪 2兩

上六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溫服一升, 須臾飲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服^{<5>}取微汗. 若不汗, 更服.

【校勘】

<1> 《醫統》本에는 “暮”字 다음에 “臥”字가 있다.

<2> 《醫統》本에는 “勞”는 “榮”으로 되어 있고, 《脈經》, 《千金》, 趙刻本과 《輯義》本에는 “勞氣”로 되어 있으며, 黃注本에는 “榮血”로 되어 있다.

<3> 《外臺》에서는 仲景의 《傷寒論》을 引用하여 “有物”은 “蟲”으로 되어 있다.

<4> 《外臺》에서는 仲景의 《傷寒論》을 引用하여 “桂枝加黃芪湯”은 “桂枝湯加黃芪五兩”으로 되어 있다.

<5> 《醫統》本에는 “溫服”은 “溫復”으로 되어 있다.

【解釋】

黃汗의 病은 兩脛이 冷하다. 만약 兩脛이 發熱하면 歷節病에 屬한다. 食後에 汗出하고, 또한 身體는 正常이면서 盜汗하는 것은 勞氣이다. 만약 汗出後에도 도리어 發熱하게 되면, 그것이 오래되어 身體가 반드시 甲錯하게 된다; 發熱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惡瘡가 생긴다. 만약 身重한데 汗出하고나서 身體가 가벼워지면 그것이 오래되어 반드시 心調하게 되고, 調한 卽 胸中痛한다. 또한 腰以上은 發汗하고, 腰以下는 無汗하게 되며, 腰髕이 皮膚中에 어떤 物體가 들어있는 것처럼 弛痛하고, 甚하면 먹지 못하고, 身體疼痛, 煩燥, 小便不利의 症狀가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黃汗病이다. 桂枝加黃芪湯으로 다스린다.

桂枝加黃芪湯方: 桂枝, 芍藥 各 3兩, 甘草 2兩, 生薑 3兩, 大棗 2枚, 黃芪 2兩

위의 六味를 水 八升으로 三升이 되게 달여 一升을 溫服한다. 服用後에 뜨거운 물이나 미음 같은 죽을 一升정도 마셔서 藥力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덮어 汗을 약간 낸다. 만약 汗이 나지 않으면 다시 服用한다.

【病因·病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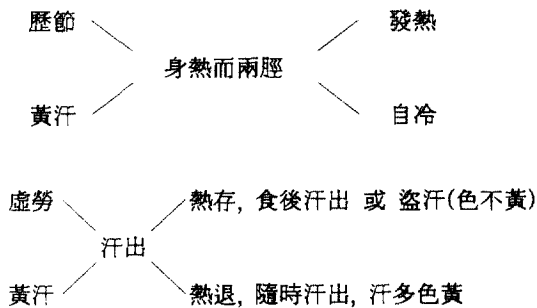
이 處方은 黃汗營衛不和로 衛氣虛滯와 黃疸病에 表證을 겸한 것을 治療한다.

이 處方證인 黃汗은 濕이 肉理에 滯留되어 營衛의 運行을 阻礙하고 脾胃에 影響을 미치고, 또 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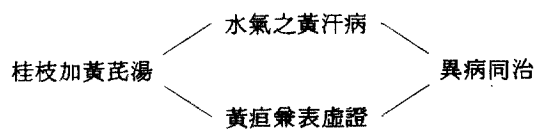
腕에 영향을 미쳐 氣化不利케 한 때문이다.

濕熱內蒸으로 氣機가 不利하고 脾가 內傷을 입으면 능히 먹을 수 없고 저녁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팔다리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여 잠을 잘 수가 없으며; 肌肉이 外傷을 입으면 身重이나 疼痛의 外證이 나타나며; 濕熱이 위로 올라오면 허리이상에서 땀이 나며; 下焦에 濕이 盛하면 陽氣가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허리이하에 땀이 나지 않고 허리와 엉덩이가 늘어지며 痛症이 늘어난 것이1 빠질 듯하여 마치 어떤 물체가 皮膚속에 있는 것 같으며; 氣化不行하면 小便不利하여 水濕이 배설되지 않는다.

이 處方證과 歷節, 虛勞의 구별에 이르러서는 本文에 상세히 論述되어 있지 않아 이에 表를 도식화하여 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도록 제시해 보았다.



게다가 이 處方은 黃疸病에 表를 겸한 자가 發熱, 惡風, 汗出 등의 症이 나타날 때 마땅히 이 處方을 使用하여 땀을 내게 하니 異病同治의 說이 된다.



위에 敍述한 것을 綜合하면 이 處方은 黃汗 초기와 黃病 초기에 濕이 肌表에 울체되고 鬱熱이 甚하지 않으며 汗出이 完全하지 않고 겨우 허리이상에서 땀이 나고 아래는 땀이 없으며 濕이 盛하여 陽이 鬱滯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그러므로 이 處方은 解肌하고 營衛를 調和하여 陽을 通하게 하

고 濕을 몰아낸다. 處方中 桂枝湯은 營衛를 調和시키고 黃芪는 益氣하며 表를 實하게 하고 行水하여 “善走皮膚”, “達于皮膚最捷”하므로 땀이 나게 하여 水를 散 하며 邪氣를 몰리치고 營衛를 調和시켜 陽氣가 鬱滯된 것을 풀어서 病이 낮게 한다. 方後가 이르기를 “溫服取微汗, 若不汗, 更服”이라 하여 이 處方의 약을 服用한 뒤 水濕의 邪氣가 땀이 나서 풀어짐을 볼 수 있다. 뜨겁고 연한 죽(粥)을 마셔 약간 땀이 나게 해야 濕과 汗이 나가고 陽이 손상 받지 않으니 黃汗證의 허리이상에서 땀이 나고 허리이하에서 땀이 안 나는 水濕이 停聚되어 衛陽이 능히 運行되지 않는 자에게 가장 적당하다. 服用後 별레나 개미가 기어가는 듯하며 땀이 온몸에 두루 나서 病이 낮는다. 이를 綜合해보면, 이 處方證의 黃汗은 汗出不止하고 허리 위 쪽으로는 땀이 나고 아래로는 땀이 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본 處方을 利用하여 調和營衛하고 逐濕走表하고 助陽散邪로 治療해야 한다.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又名:桂薑草棗黃辛附子湯)

【原文】

氣分, 心下堅, 大如盤, 邊如旋杯, 水飲所作^{<1>},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2>}主之.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方: 桂枝 3兩, 生薑 3兩, 甘草 2兩, 大棗 12枚, 麻黃, 細辛 各 2兩, 炮附子 1枚

上七味, 以水七升, 煮麻黃, 去上沫, 內諸藥, 煮取二升, 分溫三服, 當汗出, 如蟲行皮中, 即愈.

【校勘】

<1> 徐, 尤, 陳, 黃, 曹注本에는 모두 “水飲所作” 四字이 없는데,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한다.

<2> 趙刻本의 “桂薑草棗黃辛附子湯方”에 대해 지금은 《醫統》本에 依據하여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方”으로 改訂한다.

【解釋】

氣分病은 心下가 堅한 것이 접시처럼 크고, 변두리가 둥근 그릇같다. 이것은 水飲에 의하여 일어나는 疾病이니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으로 다스린다.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方: 桂枝 3兩, 生薑

3兩, 甘草 2兩, 大棗 12枚, 麻黃, 細辛 各 2兩, 炮附子 1枚

위의 七味中 麻黃을 먼저 물 七升에 넣고 달여 위에 뜬 것을 버리고, 나머지 藥들을 넣어 二升이 되게 달여 세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 마땅히 汗出하고, 皮膚中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낫는다.

【病因·病理】

이 處方은 寒飲이 氣分에 滯留한 證을 治療한다.

氣分病이라는 것은 바로 水寒의 邪氣가 陽氣의 虛한 틈을 타고 氣分에 病이 든 것이다.

이 處方證은 氣分病으로 陽虛로 水氣가 停滯되어 寒飲이 氣分에 滯留한 것이니, 즉 이른바 “水飲所作”의 氣分病이다.

陽虛로 陰이 凝聚하고, 水飲이 消滅되지 못하여 胃中에 滯留하는 고로 心下痞堅이 나타난 것이다. 自覺症狀으로는 대야를 엮어 놓은 듯 하고, 술잔을 엮어 놓은 듯 하며; 中州의 陰寒이 지나치게 旺盛하면, 水飲이 사그러들지 못하고, 胃中에 滯留하는 고로 손발이 차갑고; 脾胃陽虛로 寒氣가 橫逆하는 고로 배가 더부룩하고 腸에서 꾸룩꾸룩하며 서로 쫓는 소리가 있으며; 營衛虛로 衛陽이 不足하여 分肉을 따듯하게 하지 못하는 고로 몸이冷해지며; 營陰이 부족하여 筋骨을 充營시키지 못하므로 뼈마디가 시리고 아프다. 舌苔脈象者는 表裏가 모두 寒한 徵候를 가지고 있다.

綜合的으로 論述해 보면, 이 處方은 陽虛飲滯의 寒痞證으로 이를 治療함에 마땅히 溫陽散寒, 通利氣機, 宜飲散痞를 法으로 삼아야 한다. 處方中에 麻黃, 細辛의 辛溫한 性味는 外寒을 흐트리고 묵은 寒을 除去하며; 桂枝, 甘草의 辛甘한 性味는 衛表의 陽氣를 通하게 하며; 桂枝, 甘草, 生薑, 大棗의 溫性은 中陽을 運化하여 上下로 轉輸하여 消痞行水케 하며; 桂枝, 附子, 細辛의 溫性은 腎陽을 運化하여 寒凝을 흐트린다. 陽氣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면, 陰寒이 소실되어 營衛가 調和되고 大氣가 運轉하게 되니 그 病이 저절로 낫게 된다.

方後가 이르기를 “當汗出如蟲行皮中即愈”라고 한 것은 陽氣가 通達하면, 寒飲이 마땅히 흐트러

져서 營衛의 運行이 暢通하게 되고 陰陽이 서로 順接하게 된다. 이 處方은 陽虛飲滯의 寒痞를 治療할 뿐만 아니라 물론 陽虛水泛의 正水나 혹은 石水證을 治療한다.

枳朮湯

【原文】

心下堅, 大如盤, 邊如旋盤, 水飲所作^{<1>}, 枳朮湯^{<2>}主之.

枳朮湯方: 枳實 7枚, 白朮 2兩

上二味, 以水五升, 煮取三升, 分溫三服, 腹中軟即當散也.

【校勘】

<1> 《肘後》卒心痛門에는 “心下堅痛, 大如碗, 邊如旋杵, 名爲氣分, 水飲所結”로 되어 있다(丹波氏は 杵는 盤字라고 하였다). 《外臺》心痛癥塊門에서는 張文仲의 文을 引用하였는데, 《肘後》文과 同一하다. 또, 飲澼門에서는 《備急》을 引用하였는데, 本條와 같다. “旋盤”은 徐, 沈注에서 “旋盃”로 되어 있다.

<2> 《脈經》에는 “枳朮湯”이 “枳實朮湯”으로 되어 있다.

【解釋】

心下が 堅한 것이 접시처럼 크고, 변두리가 둥근 그릇같은 것은 水飲에 의해 일어나는 疾病이니 枳朮湯으로 다스린다.

枳朮湯方: 枳實 7枚, 白朮 2兩

위의 苡米를 물 五升으로 三升이 되게 달여, 세 번에 나누어 溫服하는데, 腹部가 軟하게 되니 堅한 것이 散하게 되는 것이다.

【病因·病理】

이 處方은 脾虛로 氣滯陰結한 氣分病證을 治療한다.

脾虛하면 運化에 문제를 일으켜 轉輸作用이 失調되고, 氣가 中焦에서 滯하여 水氣가 胃脘에 痞結한다. 그러므로, 명치밑이 땀땀하여 큰 대야같고, 가장자리는 대야를 두른 듯하며; 脾虛胃弱하면 飲食量이 적어지며; 飲食量이 적어 穀食의 精微가 不足하게 되면 권태롭게 된다.

이 處方證의 病因病機는 일시적인 水氣의 停滯이다. 이것은 脾虛胃弱으로 運化가 不及하여 水飲

이 停聚하고, 氣機가 不暢하여 된 脾虛氣滯陰結의 痞證으로 氣滯가 脾虛證보다 重하다. 동시에 이 處方證은 脾胃自病에 속할 뿐이지 桂枝去芍藥加黃辛附湯의 表證을 구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治療는 裏證으로부터 착수하니 즉, 行氣散結, 健脾利水을 法으로 삼는다. 이 두 가지 藥物을 서로 配合되면, 健脾燥濕, 行氣消痞의 功을 다하게 된다. 藥을 服用한 後에 水氣가 消散되면, 痞堅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方後注에 “腹中軟即當散也.”라고 하였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證은 脾虛氣滯水飲痞結이 명치밑(心下)의 水氣로부터 말미암아 病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治療함에 行氣散結, 健脾利水를 法으로 삼아야 한다.

附方

防己黃芪湯

【原文】

風水, 脈浮身重, 汗出惡風者, 防己黃芪湯主之. 腹痛加芍藥^{<1>}.

防己黃芪湯方^{<2>}: 防己 1兩, 黃芪 1兩 1分, 甘草 半兩炙

以上挫, 每服五錢匕, 生薑四片, 棗1枚, 水盞半, 煎取八分, 去滓溫服, 良久再服.

【校勘】

<1> 本條는 《瘧濕暍病篇》에도 나타나는데, “風水”는 “風濕”으로 되어 있으며, “腹痛者加芍藥” 六字는 없고, 方後加味에 “胃中不和者, 加芍藥三分”으로 되어 있다. 《脈經》에는 “風水, 其脈浮, 浮爲在表, 其人能食, 頭痛汗出, 表無他病, 病者但言下重, 故從腰以上和, 腰以下當腫及陰, 難以屈伸, 防己黃芪湯主之.”로 되어 있다. 또한, 細注가 있는데, 本條와 同一하다.

<2> 趙刻本에는 防己黃芪湯과 煎服法이 記載되어 있는데, 白朮 3分을 除하고 加減法이 없는 것 외에 나머지는 《濕病》篇 防己黃芪湯과 같다. 지금은 《醫統》本에 따라 “方見濕病中”으로 改注되어 있다.

【解釋】

風水病에 脈浮하고 身重하며, 汗出惡風하면 防己黃芪湯으로 다스린다. 腹痛에는 芍藥을 加한다.

防己黃芪湯方: 防己 1兩, 黃芪 1兩 1分, 甘草

半兩炙

위의 藥을 썰어서 五錢匕씩을 取하여 生薑 四片, 大棗 一枚와 더불어 半盞의 물로 八分이 되게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溫服한다. 한참 후 다시 한번 服用한다.

【病因·病理】

本條는 風水汗出의 表虛의 證治를 논술하였다. 風水가 表에 있어 脈浮身重하고 衛陽不固하여 故汗出惡風한다. 防己黃芪湯은 能히 固表祛濕, 培土制水하므로 主治라 하였다. 腹痛者는 本方に 芍藥을 가하여 止痛한다.

□ 水氣病脈證에 對한 諸家의 說 □

■ 越婢湯 ■

이름	원문
徐彬	前證身重則濕多，此獨一身悉腫，則風多氣強矣。風爲陽邪，脈浮爲熱，又汗非驟出，續自汗出，若有氣蒸之者然，又外無大熱，則外表少而內熱多，故以越婢湯主之。麻黃發其陽，石膏清其熱，甘草和其中，薑棗以通其營衛，而宣陽氣也。此方劑獨重，蓋比前風多氣多則熱多，且屬急風，故欲一劑鏗之。若惡寒，知內虛，故加附子。《古今錄驗》加朮，并驅濕矣。(金匱要略論注)
陳靈石	惡風者風也，一身悉腫者水也，脈浮者風發也。風爲陽邪，風動則水火戰而浪湧矣。湧于上則不渴，湧于外則續自汗出。云無大熱者，熱被水蔽，不得外越，內已醞釀而成大熱矣。石膏重鎮，能平息風浪以退熱，引麻黃直越其至陰之邪，協生薑散肌表之水，一物而兩握其要也。又以棗草安中養正，不慮其過散傷津，所以圖萬全也。(金匱方歌括)
吳謙	此又承上條風水，互詳其證而變其治也。風水之邪，全在表而不在裏，故惡風一身悉腫，脈浮不渴也。初本無汗，身無大熱，續自汗出而不惡風寒，表不虛也。故用越婢湯以發之。若惡風甚者，表陽虛也，前方加附子一枚，以補其在表之陽也。(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黃元御	風水惡風，一身悉腫者，水脹於經絡也，續自汗出無大熱者，表鬱作熱，熱蒸於內，風泄於外，是以汗出而泄之未透，故外無大熱。越婢湯麻黃，石膏發表而清熱，薑，甘，大棗補土而和中也。(懸解)
譚日強	本條論述風水挾熱的證治。 外有風邪，故脈浮惡風；內有水氣，故身腫不渴；風水挾熱，水爲熱迫，故續自汗出，而外無大熱；越婢湯，功能散水清熱，故主治之。“脈浮不渴”一句，尤在涇或作“脈浮而渴”，以渴者熱之內熾，汗爲熱逼，與表虛出汗不同，故得以石膏清熱，麻黃散腫，而無事兼固其表，其說亦通。(淺述)

■ 防己茯苓湯 ■

이름	원문
黃元御	陽受氣于四末，皮水爲病，陽衰濕旺，故四肢腫。水氣在皮膚中，木鬱風動，故四肢蠢蠢動搖。黃芪，桂枝，發營衛而達木鬱，苓，甘，防己，培中土而泄水氣也。(金匱懸解)
尤怡	皮中水氣，浸淫四末，而壅遏衛氣，氣水相逐，則四肢蠢蠢動也。……防己茯苓善驅水氣，桂枝得茯苓則不發表而反行水，且合黃芪甘草助表中之氣，以行防己茯苓之力也(金匱要略心典)
吳謙	皮水之病，是水氣相搏在皮膚之中，故四肢蠢蠢動也。以防己茯苓湯保衛通營，祛散皮水也。(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沈明宗	此邪在皮膚而腫也，風入於衛，陽氣虛滯，則四肢腫，經謂結陽者腫四肢，卽皮水也，皮毛受風氣虛而腫，所謂水氣在皮膚中，邪正相搏，風虛內鼓，故四肢蠢蠢而動，是因表虛也，蓋三焦之氣，同入膀胱，而行決瀆，今水不行，則當使小便利而病得除，故防己茯苓除濕而利水，……
譚日強	本條論述皮水陽虛的證治。 水在皮膚，故四肢浮腫；水氣相搏，故蠢蠢動；此衛陽虛弱，不能行水所致。防己茯苓湯：防己除濕，茯苓利水，桂枝通陽，黃芪益氣，甘草調中，故主治之。(淺述)

■ 甘草麻黃湯 ■

이름	원문
吳謙	里水之'里'字，當是'皮'字，豈有里水而用麻黃之理，閱者自知，是傳寫之訛。皮水表虛有汗者，防己茯苓湯固所宜也；若表實無汗有熱者，則當用越婢加朮湯；無熱者，則當用甘草麻黃湯發其汗，使水從皮外去也。(醫宗金鑒)
陳靈石	風水皮水之外，有正水而兼色黃，名里水。里水雖無發汗之法，而邪盛正不衰者，亦必借麻黃之力，深入其中，透出于外，以收捷效。今色黃，是濕熱相雜于內，宜此湯(越婢加朮湯)；如寒氣凝結于內，宜甘草麻黃湯。(金匱方歌括)
陳念祖	一身面目黃腫，謂之裏水，乃風水深入肌肉，非臟腑之表裏也。腠實無汗，胃熱內向，欲迅除其熱，越婢加朮湯主之。欲迅發其汗，甘草麻黃湯亦主之。(淺注)
譚日強	本條論述水在皮裏的兩種治法。 裏水，即水之在皮裏肌腠者，其證一身面目洪腫，脈沈，小便不利，宜越婢加朮湯以發越皮裏肌腠之水氣，已于前第5條作了討論；但越婢加朮湯，只適宜于裏水之有熱者，若裏水無熱，則當用甘草麻黃湯發其汗為宜，特于此條加以說明，以補前條之未備。(淺述)

■ 麻黃附子湯 ■

이름	원문
尤怡	水氣脈沈小者屬少陰，言腎水也；脈浮者為風，即風水也；其無水而虛脹者，則為氣病而非水病矣。氣病不可發汗，水病發汗則已。然而發汗之法，亦有不同，少陰則當用溫其經，風水即當通其肺，故曰脈沈者，宜麻黃附子湯，脈浮者，宜杏子湯。沈謂少陰，浮謂風也(金匱要略心典)
陳念祖	此為石水證出其方也，而并言及風水與氣腫。從反面掉出正旨，時文有借實定主之法，漢文已開之。(金匱要略淺注)
丹波元堅	按少陰，即與傷寒少陰病同義，系於表虛寒之謂。其用麻黃附子甘草湯，取之溫發。(述義)
張氏醫通	此論少陰正水之病，其脈自見沈小，殊無外出之意，若脈見浮者，風發于外也。虛脹者，手太陰氣鬱不行而為虛脹也。風氣之病，發其汗則已。即脈沈無他證者，當效傷寒少陰例，用麻黃附子甘草湯，……(張氏醫通)
譚日強	本條論述腎水，風水和氣分的辨證及治療。 水病脈沈小，屬少陰腎水，脈浮者為風水，無水虛脹者為氣分；原文氣水的“水”字，恐系“分”字之誤，詳見下“氣分”條。腎水，風水和氣分，都可發其汗，但汗法各有不同：腎水脈沈者，宜用麻黃附子湯溫經發汗；風水脈浮者宜用杏子湯宣肺發汗；杏子湯，原注未見，恐是麻黃杏仁甘草石膏湯；《金鑑》，陳靈石認為是麻黃杏仁甘草湯，要之風水挾熱者，可用麻杏石甘湯，無熱表實者，則用麻黃杏仁甘草湯為宜。氣分未出方，當用桂薑草棗麻辛附子湯溫陽通氣。(淺述)

■ 蒲灰散 ■

이름	원문
魏荔彤	厥而皮水者，厥爲陽虛陰盛之證，但在皮水中，則非中陽內虛之證，而乃衛陽外虛之厥也。皮水之邪既盛，必溢于四肢，周身之衛氣凝滯不行矣，故令得厥，非必里陽已微，方見厥逆也。此厥之因水而成者，治其水而厥可愈，主之以蒲灰散，祛水即用利水之法，水去而衛氣得行于皮膚，四肢可以回溫，而厥亦已矣。(金匱要略方論本義)
尤怡	厥而皮水者，水邪外盛，隔其身中之陽，不行于四肢也。此厥之成于水者，去其水則厥自愈，不必以附子，桂枝之屬，助其內伏之陽也。(金匱要略心典)
吳謙	‘厥而’二字，當是衍文，水在皮膚，浸淫日久，必然腐潰而出水也，當以蒲灰散敷之，以燥水也。(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淺注	此言皮水潰爛謂之厥，出其外治之方也，諸家俱作水傷陽氣而厥冷解，誤矣，此照錢太醫定之。(淺注)
譚日強	本條論述皮水身腫而冷的治法。 厥而皮水，即前第4條皮水身腫而冷的證候。水在皮膚，陽氣不能外達，故厥：這種厥冷，與陰寒內盛引起的寒厥不同，故不用桂附回陽，而用蒲灰散通利小便，使水去陽通，則腫消厥止。(淺述)

■ 黃芪芍桂苦酒湯 ■

이름	원문
趙以德	汗本津也，津泄則衛虛。水血同類陰也，水入則營寒，寒則氣鬱，鬱則發熱。水熱相搏于分肉則身腫。營出中焦，營之鬱熱，內著于脾，則津液不行而渴；衛虛腠理不固則汗出，脾土發熱則黃色見于汗如柏汁也。所以補衛爲要，黃芪益氣，入皮毛，肥腠理，退熱止汗之功尤捷，故爲君；桂枝理血入營散寒，通血脈，解肌肉，用之調營以和衛，故爲臣；營氣因邪所阻，不利于行，芍藥能和陰氣，故佐桂枝一陰一陽以利其營。苦酒，醋也，用之使引入血分以散滯也。(金匱玉函經二注)
徐彬	蓋汗出則腠疏，客水之氣從毛孔而傷其心，故水火相蒸而色黃，水氣搏結而脈沈。此證亦有從酒後汗出當風所致者，蓋雖無外水，所出之汗，因風內反，亦是水也，但此只就入水浴者言之，其理當參會耳。藥用芪芍桂酒，……(金匱要略論注)
魏荔彤	古人稱醋曰苦酒，非另有所謂苦酒也。美酒醱，卽人家家製社醋是也，亦卽釀湯紅醋。醋之勢者，卽白酒醋，各處皆是，總以社醋入藥。(金匱要略方論本義)
尤怡	黃汗之病，與風水相似，但風水脈浮而黃汗脈沈，風水惡風而黃汗不惡風爲異。其汗沾衣，色正黃如柏汁，則黃汗之所獨也。風水爲風氣外合水氣，黃汗爲水氣內遏熱氣，熱被水遏，水與熱得，交蒸互鬱，汗液則黃……(心典)
李升靈	黃汗者，汗出之色黃而身不黃，與發黃之證不同也。
譚日強	本條論述黃汗的成因和證治。 黃汗之病，身體洪腫，發熱汗出不渴等證，與風水相似，但風水惡風，黃汗不惡風，風水脈浮，黃汗脈沈；風水汗出不黃，黃汗則汗出沾衣，色正黃如藥汁，以此爲辨。黃汗的成因，是因汗出入水中浴，水從汗孔入于肌腠所致。水濕外侵，陽氣被遏，影響營衛失調，故出現以上症狀；芪芍桂酒湯，黃芪益衛，桂枝通陽，芍藥調營，苦酒消腫，故主治之。服後心煩者，是因苦酒味酸，阻留藥力之故，服至六七日，則榮衛協調，其病自解。(淺述)

■ 桂枝加黃芪湯 ■

이름	원문
徐彬	<p>此段論黃汗中變證零雜，同歸于黃汗，其治大同而小異也。謂黃汗病由水氣傷心，故熱聚心胸，君火不能下交于腎，每兩脛自冷，自者真氣不下，非足下另受邪也。假令發熱而足脛亦熱，是風寒歷于肢節而痛，故曰此屬歷節。其汗出之期，乃心火為水濕所傷，不能生土，中氣虛緩，心主血，營分虛熱，于是食已胃勞火動則汗，當暮陰虛則汗，故曰此勞氣也。乃又設言汗與發熱，及身重相并之際，以盡病態曰，假若汗出已，宜身涼，今因內邪盛而反熱，則皮膚之陰氣為汗所煉，久久必甲錯。更發熱不止，營氣熱腐，則生惡瘡。假若身本重，濕也，汗出已輒輕，是表濕為汗所衰，但暫輕而不能止其重，則內氣愈虛，乃虛則肌肉踴躍動也。胸中痛，氣不運也。又或元氣上下不能貫串，則腰以上汗，下無汗，于是元氣不能及下，則腰膕弛痛，弛如脫也。如有物在皮中狀，不便捷也。其劇而危者，胸中之元陽傷，則不能食，周身之陽氣窒，則身痛，氣壅則煩躁，心火鬱冒，而熱氣下流則溺澁。然皆積漸所致，其原總由水氣傷心而病日深，故曰此為黃汗。藥用桂枝加黃芪者，調和營氣，而暢其氣，則補正即所以祛邪耳。(金匱要略論注)</p>
程門雪	<p>黃汗一病，病因雖為水入汗孔，水從外入，及其變化，乃有虛實之不同，決非如水病之發汗利水純從實治者可比矣！黃者，中土之色也，濕鬱土苑則黃，如黃疸是；脾虛本藏之色外越，亦黃，黃汗之黃，蓋虛黃耳。始由水入汗孔，傷其衛陽，由表入裏，又傷其心陽。而其人之本體又屬脾陽不足者，脾虛不能自蘊其華，心虛不能自藏其液，表陽虛不能斂其外泄之津，中陽虛不能化其外來之濕，而黃汗之病以成(金匱篇解)</p>
趙以德	<p>黃汗病由陰陽水化不既濟。陰陽者，營衛之主，營衛者，陰陽之用，陰陽不既濟，而營衛亦不循行上下，陽火獨壅於上，為黃汗，陰水獨積於下，致兩脛冷……(二注)</p>
唐宗海	<p>此言黃汗變證不一，總緣發黃本為鬱病，得汗不能透徹，則鬱熱不得外達，所以又出一桂枝加黃芪之方法也(補正)</p>
張氏醫通	<p>黃汗皆由營氣不和，水氣承虛襲入，所以有發熱出汗，身體重痛，皮膚甲錯，肌肉踴動等證。至于脛冷膕弛，腰下無汗，內經所謂身半以下，濕中之也。脈沈遲者，水濕之氣滲于經脈，而腎遲滯不行之狀，證雖多岐，觀其所治，咸以桂芍和營散邪，……(張氏醫通)</p>
金匱要略方論本義	<p>……仲景主之以桂枝加黃芪湯，驅邪于表，升陽于裏，驅邪以固衛，而營氣之泄為汗者止矣。升陽兼補氣，而內濕之囊為熱者消矣。一方而濕去熱除，氣充陽旺，乃邪正兼理之法也。(金匱要略方論本義)</p>
譚日強	<p>本條論述黃汗的變證及其治療。 黃汗之病，亦與歷節相似，均有發熱骨節疼痛等證，但黃汗則兩脛自冷，歷節則兩脛發熱，這是辨證的要點。若食已汗出，臥常盜汗，則為衛氣外泄，榮氣內虛的現象。若汗出而熱不為汗減，津液外泄太多，則皮膚枯燥，必如鱗甲之交錯；若發熱不止，熱傷血脈，必生惡瘡，惡瘡即本篇首條所說的癰膿。若濕勝身重，汗出則濕隨汗泄，故身重轉輕；但汗出日久，陽氣必傷，故身體肌肉踴動而胸中聚痛；又從腰以上出汗，腰以下無汗，則為上焦陽虛，下焦濕重，故腰膕痠軟疼痛，有物如在皮中狀。其劇者，濕鬱中焦則不能食，濕侵肌肉則身疼重，陽為濕鬱則煩躁不眠，水濕不化則小便不利，這是黃汗表虛濕鬱，榮衛失調所演變的結果。桂枝加黃芪湯，功能調和營衛，通陽散邪，故主治之。(淺述)</p>

■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 ■

이름	원문
丹波元堅	《巢源》氣分候曰：夫氣分者，由水飲搏于氣，結聚而成。氣之流行，常無壅滯，若有停積，水飲搏于氣，則氣分結而住，故云氣分。(金匱玉函要略述義)
尤怡	氣分即寒氣乘陽之虛，而結于氣者，心下堅大如盤，邊如旋杯，其勢亦已甚矣。然不直攻其氣，而以辛甘溫藥，行陽以化氣，視後人之襲用枳，朴，香，砂者，工拙懸殊矣。云當汗出如蟲行皮中者，蓋欲使既結之陽，復行周身而愈也。(金匱要略心典)
陳靈石	此證是心腎交病，上不能降，下不能升，日積月累，如鐵石難破。方中用麻黃，桂枝，生薑以攻其上，附子，細辛以攻其下，甘草，大棗補中焦以運其氣，庶上下之氣交通而病可愈(金匱方歌括)
黃元御	氣分清陽之位，而濁氣痞塞，心下堅大如盤，邊如旋杯，此下焦陰邪逆填陽位，必緣土敗而水侮也。(懸解)
吳謙	氣分，心下堅大如盤，邊如旋杯，水飲所作，之十六字，當是衍文，觀心下堅之本條自知。‘桂枝去芍藥加麻黃附子細辛湯主之’十五字，當在上條氣分之氣，義始相屬，正是氣分之治法，必是錯簡在此。(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譚日強	本條是承上條論述氣分病的治療方劑。 氣分病，是因陽氣不行，寒氣不散所致，其脈證已見于上條，與水飲所作者無關，故宜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溫經散寒，通陽化氣以主治之；若系水飲所作的心下堅，當為枳朮湯所主治，詳見按語及下條。(淺述)

■ 枳朮湯 ■

이름	원문
尤怡	證與上同，曰水飲所作者，所以別于氣分也。氣無形，以辛甘散之；水有形，以苦泄之也(金匱要略心典)
趙以德	心下，胃上脘也。胃氣弱，則所飲之水，入而不消，痞結而堅。必強其胃，乃可消痞，白朮健脾強胃，枳實善消心下痞，逐停水，散滯血。(金匱二注)
張氏醫通	……枳朮二味開其痰結，健其脾胃，而陽分之邪解之自易易耳。人但知枳實太過而用白朮和之，不知痰飲所積，皆由脾不健運之故。苟非白朮豁痰利水，則走用枳實無益耳。(張氏醫通)
譚日強	本條論述水飲病引起“心下堅”的證治。 心下，即胃的部位；胃有水飲，故心下堅；大如盤，是言其堅的面積；邊如旋盃，是言其邊圓中空，此為水飲所作，與前條“氣分，心下堅，大如盤，邊如旋盃”之由于陽氣不行，寒氣不散所致者不同，故不用桂薑草棗麻辛附子湯，而用枳朮湯攻堅消痞，健胃制水以主治之。(淺述)

■ 防己黃芪湯 ■

이름	원문
趙以德	脈浮表也；汗出惡風，表之虛也；身重，水客分肉也。防己療風腫水腫，通腠理，黃芪溫分肉，補衛虛，白朮治皮風之汗，甘草和藥益土，生薑大棗辛甘發散，腹痛者，陰陽氣窒，不得升降，加芍藥以和之(金匱玉函經二注)
陳靈石	惡風者，風傷肌腠也；身重者，濕傷經絡也；脈浮者，病在表也。何以不用桂枝麻黃以發表祛風，而用防己黃芪以補虛行水乎？蓋以汗出爲腠理之虛，身重爲土虛濕勝，故用黃芪以走表塞空，棗草白朮以補土勝濕，生薑辛以祛風，溫而行水，重用防己之走而不守者，領諸藥環轉于周身，上行下出，外通內達，迅掃而無余矣。(金匱方歌括)
丹波元簡	此條校之於痙濕喝篇，唯濕作水爲異耳，蓋此後人誤入者，附方所載，外臺證治的是本經之舊文，脈經與外臺同，可以證矣。(輯義)
吳謙	風水之病，外風內水也。脈浮惡風者風也，身重腫者水也，汗出表虛，故用防己黃芪湯，固表以散風水也。(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趙良	脾脹恐是肺字之誤，靈樞經云，肺是動則病，肺脹滿膨，膨而喘欬也
魏荔彤	其狀如腫者，按其手足，未至陷而不起，故曰如腫，似腫而實非腫也。
余無言	脈浮汗出惡風，桂枝湯證也。唯加一身重，膚有水腫，此爲風水合病，故不用桂枝，而以防己黃芪湯治之。
譚日強	本條論述風水汗出表虛的證治。 風水在表，故脈浮身重；衛陽不固，故汗出惡風；防己黃芪湯，功能固表祛濕，培土制水，故主治之，腹痛者于本方加芍藥以止痛。(淺述)

IV. 考 察

越婢湯은 原文에 風水惡風, 一身悉腫, 脈浮不渴, 續自汗出, 無大熱를 主之한다고 하였다. 湯名인 '越婢'는 發越脾氣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章虛谷은 '婢'는 마땅히 '脾'로서 잘못 배겨 쓴 것이 라 하였고, 成無己는 "婢"는 "脾"를 가리키며, 아울러 잘못 배겨 쓴 까닭으로 이것은 "脾"와 "婢"의 유사속성 때문에 借用한 것이라고 하여 脾를 가리킨다고 하였고, 錢天來는 越婢의 명칭은 越나라의 婢라는 데서 이름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고, 南京中醫學院 張谷才는 "婢"는 "痺"로 잘못 배겨 쓴 까닭이라고 하였고, 《安徽中醫學院學報》은 위 說들을 모두 부정하고, "婢"는 곧 "卑"로서, "越婢"는 곧 "越卑"의 뜻으로 水濕이 重濁沈降하여 낮은 곳에 多濕이라하여 "卑濕"이라 일컫기도 하며, "越"은 곧 "散"의 뜻으로 水濕으로 하여금 위로 發散하는 것이니 즉 "越卑"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脾가 水濕을 運化하므로 脾와 관련

되어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方函口訣》에서는 이 方은 脾氣를 發越한다는 본 뜻이 있으며, 비록 麻黃劑에 속하지만, 麻黃湯, 大青龍湯과는 다른 처방으로 無大熱自汗出이 목적으로, 肺脹皮水 등에 사용하되 傷寒溢飲에는 사용하지 않고, 論중의 麻杏甘石湯과 이 처방은 같은 類라고 하였다. 한편 李克光은 이 處方이 風水挾熱의 證을 治療하는 것으로, 風水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 風邪가 外部에서 侵襲하여 衛氣를 不足하게 만들고, 肺의 氣機를 失調시켜 正常的인 生理機能인 宣發肅降作用에 문제를 일으켜 水道가 通調하지 못하므로 水濕이 肌表(膚表)에 滯留하게 된다고 하여 肺를 言及하였다. 風水가 表에 있으므로 惡風, 脈浮하게 되고, 風邪가 肺氣를 壅塞시켜 氣機가 失調되어 氣가 水로 化하지 못하므로 一身悉腫한다.

無大熱은 외부에 큰 熱이 없을 뿐 내부에는 熱이 있는 것인데, 黃은 續自汗出, 無大熱함이 表鬱로 熱이 되고, 內部로 熱이 熏蒸하고, 風이 外泄함

으로 汗出하는데, 완전히 못하여 外無大熱한 것으로 越婢湯의 麻黃, 石膏로 發表清熱하고, 生薑, 大棗, 甘草로 補土和中한다고 하였다. 徐는 外熱少하고 內熱多하다고 하였고, 陳은 熱이 水로 막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에 쌓여서 大熱이 된 것이라 하였고, 따라서 麻黃으로 至陰之邪를 直越하고 生薑으로 散肌表之水를 協助하게 한다고 하였다.

脈浮不渴에 대해, 《素問·評熱論》에서는 “風水者口中乾而渴”라 하였는데 《金匱要略》原文에는 “不渴”이라고 되어 있는데, 尤在涇은 “脈浮不渴句, 或作脈浮而渴”이라 하여 風水에 渴症, 不渴 모두를 언급하였고, 渴한 것은 內部的 熱이 熾盛한 때문이라 하였다. 譚은 尤의 說을 支持하였고, 渴은 熱之內熾로 汗出이 熱迫으로 인한 것이고, 表虛汗과 다르다고 하였으며, 吉林中醫은 口渴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不正의 病症으로 ‘不渴’하나 만이 言及되어 있으므로 不渴이 지나는 臨床的 意義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春庭經方辨에서는 不渴함은 肌肉中에 熱이 있고, 裏에 熱이 없기 때문이며, 或者가 不渴이 渴로 되었음으로 옳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李克光은 水腫이 輕하고, 內熱이 뚜렷하지 않아 身腫不渴하고, 만약 水勢가 비교적 盛하여 水氣가 停滯되어 津液이 上昇하지 못하고 或은 內熱을 겸하면 口渴이 나타난다고 하여 風水가 口渴하거나 혹은 不渴할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로서 볼 때 口渴이 風水의 症狀으로 나타날수도 있으며, 口渴은 風邪가 이미 化熱하여 津液이 이미 耗傷되었을 때 나타나며, 不渴은 裏에 大熱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春庭經方辨》의 著者는 惡風은 表의 陽氣가 鬱滯, 不渴은 肌肉중에는 熱이 있으나 裏에는 熱이 없는 것, 自汗出은 肉중의 鬱熱이 極하여 땀이 나는 것으로 陽明病多汗의 뜻과 같으며, 無大熱하는 것도 또한 肉중에 大熱이 있으나 表에는 오히려 심한 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肌肉의 열이 심한 상태라고 주장하였고, 《千金》의 越婢湯은 肉極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熱이 나면 身體의 津液이 脫하고, 腠理가 열려 땀이 크게 빠져나가며, 風氣를 겪게 되며, 下焦의 다리가 약하게 됨을

治療한다고 하였다. 惡風에 附子를 加하는 것은 表陽虛를 補하는 것으로, 吳謙은 初期에 無汗, 身無大熱하고, 續自汗出하면서 不惡風하는 것은 表가 虛하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 惡風이 甚한 것은 表陽虛이므로 附子를 加한다고 하였고, 徐淋은 惡寒은 內虛하므로 附子를 加한다고 하였다.

風水에 白朮을 加하는 것은 裏濕이 지나치므로 麻黃과 함께 표리를 아울러 疏通시켜서 利水消腫을 增強시키는 것이다. 《諸病源候論》에서는 越婢湯加朮四兩으로 婦人脚氣에 外盛한 자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眼科錦囊》에서는 越婢湯加朮湯은 努肉淡紅, 面目黃腫, 小便不利한 者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현대임상에서 이 처방은 急性腎盂腎炎初起, 喘息, 百日咳, 慢性氣管炎, 肺氣腫, 妊娠腎性浮腫 등에 常用한다.

防己茯苓湯은 皮水爲病, 四肢腫, 水氣在皮膚中, 四肢蠢蠢動者를 主之한다고 하였으며, 防己 3兩, 黃芪 3兩, 桂枝 3兩, 茯苓 6兩, 甘草 2兩으로 구성되어 있다. 本方은 《外臺》에서는 “療皮水如腫, 水氣在皮膚中, 四肢集集動, 木防己湯”이라 하였다. 이 處方은 皮水表虛의 證을 治療한다. 四肢腫과 四肢蠢蠢動에 대해 黃은 陽受氣於四末하는데, 陽衰濕盛하여 四肢가 腫하며, 水氣가 皮膚에 있어 木鬱風動하여 四肢蠢蠢動이라 하였고, 따라서 黃芪, 桂枝로 營衛를 發하고 木鬱을 達한다고 하였다. 尤는 水氣가 四末을 浸淫하여 衛氣가 鬱滯되어 기수가 상수하여 四肢蠢蠢動한다고 하였고, 吳는 水氣가 皮膚中에 相搏하여, 譚또한 水氣가 相搏하여 發生하며, 李는 衛陽虛라고 하였다. 따라서 防己·茯苓으로 利水하고, 桂枝로서 通陽한다. 黃芪는 益氣하고, 甘草는 調中하고, 尤는 桂枝가 茯苓을 얻으면 不發表하고 도리어 行水한다고 하였고, 黃芪·甘草가 表中之氣를 도와 防己茯苓의 利水를 行하게 한다고 하였다. 吳는 防己茯苓湯이 한마디로 保衛通營, 祛散皮水한다고 하였다.

李克光은 本方이 脾肺氣虛로 衛陽이 虛滯되어 水濕을 運化와 敷布시키지 못하고, 水濕의 邪氣가 皮膚에 侵入하여 病이 된 것이라 하였고, 그 機轉으로서 脾가 四肢를 主觀하여 脾가 病들면 陽氣가 運化되지 못하고 水氣가 四肢로 歸하여 이를 누르

면 누른 자국이 남아 있는 고로 “四肢腫”하며,四肢의 浮腫은 衛陽이 阻遏을 받아 正氣와 邪氣가 서로 抗爭하므로 四肢肌肉이 떨리는 “四肢轟轟動”한다고 하였다.

惡風, 渴症에 대해 李는 皮水는 風邪로 인해 病이 든 것이 아니므로 不惡風하며, 水濕의 邪氣는 陰에 속하고, 동시에 또 陽氣를 阻滯시키므로 四肢에 溫氣가 없고 또한 渴症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은 “外證膚腫, 按之沒指”의 皮水證이 되며, 通陽化氣로써 이를 治療하면 表裏가 나뉘어 症狀이 消滅하게 된다.

甘草麻黃湯은 原文에 裏水, 越婢加朮湯主之, 甘草麻黃湯主之. 越婢加朮湯方, 方見上, 又內加白朮四兩. 又見脚氣中, 甘草麻黃湯方 甘草 2兩, 麻黃 4兩라 하였는데, 原文의 裏水에 대해서 李는 “裏水”는 당연히 “皮水”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脈經》注에서는 “一云皮水”라 하여 裏水가 곧 皮水라 하였으며, 《外臺》에는 “皮水, 一身面目悉腫, 甘草麻黃湯主之”, “皮水, 越婢加朮主之.”라 하여 모두 皮水라고 하는 등, 校勘에서는 모두 皮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吳는 裏水의 “裏”字는 마땅히 “皮”字이며, 잘못 베껴 쓴 때문이며, 근거로 裏水에 麻黃을 使用하는 理致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陳念祖는 一身面目이 黃腫한 것은 裏水이고, 風水가 肌肉으로 깊이 들어간 것으로, 臟腑의 表裏를 말함이 아니라고 하였고, 陳靈石은 正水에 黃色을 겸한 것은 裏水라고 하였다. 또한 譚도 皮水는 水濕이 皮裏肌腠에 있는 것이라 하는 등, 裏의 개념을 肌肉으로 본 醫家는 모두 肯定하였다. 따라서 裏水가 校勘이나 吳說을 따라 잘못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越婢加朮湯과 甘草麻黃湯의 사용에 대해서, 吳는 表實無汗有熱者에 越婢加朮湯을 無熱者에 甘草麻黃湯으로 發其汗, 使水從皮外去하고 陳은 濕熱相雜于內한 者에는 越婢加朮湯을 寒氣凝結于內한 者에는 甘草麻黃湯을 쓰고, 陳念祖는 腠實無汗, 胃熱內向, 欲迅除其熱에는 越婢加朮湯을 欲迅發其汗에 甘草麻黃湯을, 譚은 一身面目洪腫, 脈沈, 小便不利 裏水之有熱者에 發越皮裏肌腠之水氣할 목

적으로 越婢加朮湯을, 裏水無熱에 甘草麻黃湯으로 發其汗한다고 하였다. 共通點은 越婢加朮湯은 裏熱을 제거하고, 甘草麻黃湯은 無熱(內寒)에 쓴다고 한 것이다.

이는 甘草麻黃湯이 皮水에 裏熱을 挾雜하지 않은 證을 治療하는 것으로 水寒之氣가 肺衛를 阻遏하여 肺氣가 不宣하고, 水邪가 皮膚에 滯留하여 能히 外泄되지 못하여 浮腫에 이른 것을 主治하는 처방이라고 하였다. 근거로 方後에 “重覆汗出, 不汗, 再服”이라 하였으니, 이 處方證은 마땅히 表實無汗에 속함을 알 수 있으므로 汗法을 써서 治療함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本方으로 和中補脾, 宣肺利水시켜 治療하는 것으로 處方中의 甘草는 和中補脾하고 麻黃은 發汗利水한다. 이 두 가지 藥物은 서로 協同作用을하여 和中補脾, 宣肺利水の 공을 다한다고 하였다. 王子接은 甘草가 麻黃의 作用을 緩和시켜 中焦의 水穀之津으로 汗出하므로 內部の 陰을 손상하지 않고, 邪氣가 表를 쫓아 흩어지며, 반드시 지나치게 汗을 내서 亡陽의 過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絳雪園古方選注》

麻黃附子湯은 原文에 水之爲病, 其脈沈小, 屬少陰; 浮者爲風, 無水虛脹者 爲氣, 水, 發其汗即已. 脈沈者宜麻黃附子湯, 浮者宜杏子湯이라 하였다. 本條를 살펴보면, 脈浮와 脈沈으로 腎水와 風水를 구분하고, 氣와 水에 대한 區分을 하였다. 譚, 尤, 丹, 張등은 모두 水病에 脈沈하며 腎水이고, 脈浮하면 風水라고 하였고, 氣와 水의 區別에 대하여 尤는 無水而虛脹은 氣病이고 水病이 아니라고 하였고, 譚은 無水虛脹은 氣分으로 原文의 氣水는 氣分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하였고, 張은 虛脹은 手太陰氣鬱不行으로 인한다고 하였다. 氣脹은 腹部가 비록 脹滿하나, 실제로는 水가 없으며, 肢體가 腫脹하며, 이를 누르면 누른 자국이 남거나, 혹은 비록 凹陷處가 있다손 치더라도 손을 따라서 원상태로 일어나는 점이 無水의 특징이다. 氣와 水를 區分하여야 治法이 정해지는데, 氣病은 不可發汗하고, 水病은 發汗하면 낫는다. 風水와 腎水의 治法은 둘 다 發汗을 하는데, 尤는 少陰은 溫經하고, 風水는 通肺하고, 譚은 少陰은 溫經發汗하

고 風水는 宣肺發汗한다고 하므로 少陰은 麻黃附子湯을 風水는 杏子湯을 쓴다고 하였다. 少陰水氣를 李는 正水라고 하고, 陳(진념조)은 石水라 하였다. 石水는 病源辭典(162)에서는 病源이 ‘由腎氣不運,水停於下,구畜不行,而致腹脹’하고 症狀이 ‘脈沈,腹滿不喘,起臍以下至小腹,脹硬如石,有聲如水,上至胃脘者危’라하고 越婢加白朮湯, 或眞武湯을 쓴다고 한다.

李는 麻黃附子湯은 正水證을 治療하고, 杏子湯은 風水證을 治療하며, 正水라는 것은 水腫病으로 脈이 沈小하여 少陰脈에 속하는 것이니 즉 足少陰腎의 陽虛로 능히 化氣行水를 하지 못하고, 水氣가 범람하여 浮腫이 된 것이다. 風水라는 것은 水病으로 오습오습 추위하고 脈이 浮한 것이다. 이것은 곧 風邪가 肺衛를 傷하고, 衛陽이 阻遏을 받아 肺氣가 壅滯하므로 해서 水病을 일으킨 것이다. 그 病邪는 肺에 있으므로 脈은 浮하다고 하여 그 病機를 말하였다.

〈脈經〉에는 “麻黃附子湯”은 “附子麻黃湯”으로 되어 있고 《傷寒論·少陰病篇》에 같은 처방으로 “麻黃附子甘草湯”이 있는데, 丹은 “按少陰, 卽與傷寒少陰病同義, 系於表虛寒之謂. 其用麻黃附子甘草湯, 取之溫發”, 張은 “卽脈沈無他證者, 當效傷寒少陰例, 用麻黃附子甘草湯”이라 하여 麻黃附子甘草湯이라 한 경우가 있다.

李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처방의 藥味는 서로 같으나, 용량은 다르며, 主治 또한 差異를 보이는데, 麻黃附子甘草湯은 麻黃, 甘草의 量은 서로 같고, 主治는 “少陰病, 得之二三日無裏證, 故微發汗也”이며, 吐利厥逆의 裏證이 없는 것으로 少陰感寒이 되어 溫經이 위주이고 發汗을 그 다음이다. 이 處方의 麻黃은 甘草에 倍가 되므로 發汗을 爲主로 하고, 溫經은 그 다음이 되며, 腎陽을 扶助하여 肺氣가 열리면, 이로 하여금 化氣行水케 해서 受邪泛濫을 제압한다라고 하였다.

杏子湯에 대해서는 즉 “脈浮, 宜杏子湯.”이다. 이 處方은 이미 散佚되어 여러 견해가 있는데, 吳謙, 陳靈石등은 “甘草麻黃湯加杏子”, 尤在涇은 麻行石甘湯, 曹穎甫는 麻杏薏甘湯, 魏念庭은 辨證觀으로써 “內水濕而外風寒, 其挾熱者, 可用麻行石甘湯

也, 如不挾熱者, 莫妙于前言甘草麻黃湯加杏子, 今之三拗湯矣”라 하여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고, 현대인인 王庭富, 贊成魏의 說로는 만일 風水로 肺熱이 重하고, 發熱惡風, 浮腫이 있으면서 喘息을 하고, 舌質은 紅色, 舌苔는 薄黃하고 津液은 적으며, 脈은 浮滑하면, 麻行石甘湯을 使用하여 宣肺清熱하고, 만일 風水로 表裏에 熱象이 없으며, 浮腫이 있으면서 喘息을 하고, 舌質은 淡薄하고 白津潤하며, 脈은 浮緊하다면, 三拗湯을 使用하여 宣肺散水으로써 平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魏念庭의 설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李는 “腎水の 汗法과 風水의 汗法에는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腎陽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고로 이를 治療함에 溫經發汗시켜야 한다. 處方 중의 麻黃은 腠理를 열어 發汗시켜 表에 있는 水濕을 發散시키며; 附子는 溫經助陽作用으로 腎陽虛를 補하며, 甘草는 健脾和中하고 麻黃의 辛甘한 性味와 配合하여 發散作用을 가지며, 또 附子の 扶陽作用을 도와준다. 이 세 가지 藥物의 協同作用은 溫陽發汗, 化氣行水의 作用을 다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은 水腫病으로 脈이 沈小한 正水를 治療하는 것으로써 溫經發汗의 方法으로 通陽開竅시켜 水氣를 다스리는 妙劑이다.

蒲灰散은 原文에 厥而皮水者를 主之한다고 하였는데 이 처방이 消渴篇에 있다고 하였고, 본편에는 내용이 없으며, 〈脈經〉水氣篇에는 이 條문이 없다. 厥而皮水는 魏는 皮水의 邪가 既盛하여 溢于四肢하고 周身の 衛氣가 凝滯不行하는 것으로, 厥의 原因이 水로 인해 생긴 것으로 魏는 ‘皮水中則非中陽內虛之證 而乃衛陽外虛之厥’, 譯은 ‘水在皮膚, 陽氣不能外達, 故厥’, 尤는 ‘水邪外盛, 隔其身中之陽, 不行于四肢’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陰寒內盛하여 발생하는 寒厥과 不同하고 治法도 水氣를 除去하면 厥이 스스로 낮게 되므로, 溫陽하는 附子, 桂枝가 필요없다고 하였다. 蒲灰散은 通利小便하는 處方으로 水를 去하여 陽氣를 通하게 하여 消腫하면서 厥이 스스로 그치게 된다. 한편 吳는 厥이 ‘水在皮膚, 浸淫日久, 必然腐潰而出水’하는 것으로 蒲灰散을 붙여서 燥水한다고 하고, 譚은 ‘皮水潰爛謂之厥’이라고 하고, 다른 說의 오

류를 주장하였다.

黃芪芍桂苦酒湯은 芪芍桂酒湯이라 하기도 하고 原文에는 黃汗之爲病, 身體腫, 發熱汗出而渴, 狀如風水, 汗沾衣, 色正黃如柏汁, 脈自沈, 何從得之? 師曰: 以汗出入水中浴, 水從汗孔入得之, 宜芪芍桂酒湯主之라 하였다. 黃汗의 症에 대하여 趙는 水가 血에 屬하며, 寒濕이 營을 傷하여 營이 凝滯되어 熱로 化하여 水熱이 分肉에 있는 故로 身腫하고, 衛虛하여 腠理가 不固하므로 汗出하고, 營이 中焦에서 出하므로 脾土가 發熱하여 黃色이 柏汁처럼 된다고 하였다. 魏念庭은 黃汗은 病이 血分에 있어 脾胃 黃色을 발하며, 全身이 黃色이 되지 않으며, 發黃과는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徐는 水氣가 毛孔으로 入하여 傷心하여 水火가 相蒸하므로 黃色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譚은 汗出入水中浴時에 水가 腠理로 入하여 水濕이 外沈하여 陽氣가 被遏되어 營衛失調를 誘發하여 諸症이 생긴다고 하였고, 李또한 營衛失調로 黃汗이 생기므로, 調和營衛, 祛散水濕의 治法을 쓴다고 하였다. 黃汗은 汗出에 沐浴을 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徐는 飲酒後 汗出時에 當風하는 때에도 發生한다고 하였다.

黃汗과 風水의 差異에 대해서 風水는 惡風하고, 黃汗은 不惡風하고, 風水는 脈浮하고, 黃汗은 脈沈한 것이 差異點이며, 黃汗은 汗出沾衣하고 色이 正黃하여 藥汁과 같은 것이 독특한 差異點이다. 機轉으로 보면 風水는 風氣가 水氣와 外合한 것이고, 黃汗은 水氣가 熱氣를 內하여 發生하는 것이다. 黃汗이 脈沈한 것은 水가 中에 留滯하여 脈絡이 阻遏을 받는 故로 脈이 沈한 것으로, 渴에 대해 趙는 營의 鬱熱이 內畜於脾하여 津液이 不行하여 渴하다고 하였고, 譚은 黃汗이 發熱汗出不渴하며, 浮腫함이 風水와 共通點이라고 하여 不渴하다고 하였고, 《巢源》, 《千金》, 《脈經》細注등에는 “而渴”이 “不渴”로 되어 있다. 黃芪芍桂苦酒湯은 黃芪 5兩, 芍藥 3兩, 桂枝 3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黃芪, 桂枝, 芍藥은 行陽益陰하고, 酒를 얻으면 氣血이 行하여 두루 나오니, 대개 營衛로 하여금 크게 行하게 하여 邪氣가 華連케 할 따름이다. 尤는 ‘苦酒阻’에 대해 行하고자 하나 行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藥力을 쌓아 놓고 이내 곧 저절로 行하게 되는 것으로, 6~7일 동안 服用하면 곧 풀리게 된다고 하였다. 魏는 苦酒가 濕熱하여 濕邪와 서로 阻滯되므로 心煩이 발생하는데, 苦酒만이 血分에 들어가 邪氣를 몰아 낼 수 있으므로 쓰며, 6~7일이 지나면 濕邪가 점점 除去되므로 苦酒의 濕에 阻滯되는 바가 없어지므로 心煩도 저절로 멈추는 것이라 하였다. 李는 黃芪는 補氣固表하며, 芍藥, 苦酒는 血分에 있는 것을 治療하며, 桂枝를 引經하여 營分으로 들어가 水濕의 邪氣를 제거하며, 반드시 心煩의 症狀이 있는데, 六七日을 服用하면 心煩이 제거되며, 만약 心煩이 멈추지 않으면 藥力을 苦酒가 妨害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總括해 보면, 이 處方은 陽鬱營血有熱의 黃汗證을 治療한다.

桂枝加黃芪湯은 原文에 黃汗의 症狀을 “若汗出已反發熱者, 久久其身必甲錯. 發熱不止者, 必生惡瘡. 若身重, 汗出已輒輕者, 久久必身潤, 潤即胸中痛, 又從腰以上必汗出, 下無汗, 腰髖弛痛, 如有物在皮中狀, 劇者不能食, 身疼痛, 煩燥, 小便不利, 此爲黃汗”이라 하고 桂枝加黃芪湯으로 主之한다고 하였다. “黃汗之病, 兩脛自冷. 假令發熱, 此屬歷節. 食已汗出, 又身常暮盜汗出者, 此勞氣也.”라 하여 歷節, 勞氣와의 차이점도 언급하였다. 歷節은 全身發熱로 兩脛이 熱하고, 黃汗은 身熱한데, 兩脛은 冷하다, 勞氣는 校勘을 해보면, 《醫統》本에는 “勞”가 “榮”으로 되어 있고, 《脈經》, 《千金》, 趙刻本과 《輯義》本에는 “勞氣”로 되어 있으며, 黃注本에는 “榮血”로 되어 있는데, 譚은 食已汗出하고 臥常盜汗하며 이는 衛氣外泄되고 榮氣內虛하는 現象이라고 하였고, 勞氣는 熱이 있으며, 食後汗出하거나 或 盜汗하며, 色은 黃色이 아니고, 黃汗은 熱이 내리고 때를 따라 汗出하고 色이 黃色으로 구별이 된다.

程門雪은 黃汗의 形成에 대해 “始由水入汗孔, 傷其衛陽, 由表入裏, 又傷其心陽. 而其人之本體又屬脾陽不足者, 脾虛不能自蘊其華, 心虛不能自藏其液, 表陽虛不能斂其外泄之津, 中陽虛不能化其外來之濕, 而黃汗之病以成”이라 하여 衛陽, 心陽이 차례로 손상되고, 원래 脾陽이 不足한 경우라 하였

고, 虛黃의 類라고 하였다.

李는 本方이 黃汗營衛不和로 衛氣虛滯와 黃疸病에 表證을 겸한 것을 治療하며, 病理機轉이 黃汗은 濕이 肉理에 滯留되어 營衛의 運轉을 阻礙하고 脾胃에 影響을 미치고, 또 膀胱에 影響을 미쳐 氣化不利하다고 하였다. 治法은 諸症이 濕이 盛하여 陽이 鬱滯된 경우이므로 解肌하고 營衛를 調和하여 陽을 通하게 하고 濕을 제거하는 桂枝湯은 營衛를 調和시키고 黃芪는 益氣하며 表를 實하게 하고 行水하여 “善走皮膚”, “達于皮膚最捷”하므로 汗이 나게 하여 水를 散하며 邪氣를 물리치고 營衛를 調和시켜 陽氣가 鬱滯된 것을 풀어서 病이 낫게 한다.

尤는 “양쪽 종아리가 시린 자는 陽이 鬱滯되어 아래로는 通하지 않기 때문이다. 黃汗은 원래 發熱하는데 이것은 가짜 發熱이고, 또 歷節이라는 것은 歷熱을 말하는데 이것은 身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歷節, 黃汗은 病의 형상이 서로 비슷하나 歷節은 온 몸에서 熱이 나는 것이고 黃汗은 몸에서 熱이 나지만 종아리는 시리다. 食事後에 汗이 나고 또 저녁이 되면 누워 식은 汗을 흘리는 자는 營中之熱인데 이것은 氣가 움직여서 밖으로 뜨거나 혹은 升陽하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다. 黃汗이라는 것은 역을 되어 나타나는 증상인데 汗이 나면 外達之氣가 있는 것이고, 만약 汗이 난 後 오히려 發熱하는 자는 이것은 熱과 汗이 함께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오래되면 皮膚가 딱딱해지고, 혹은 惡瘡가 나는데 이것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밖에서 盛한 것이다. 만약 汗을 다 흘린 후에 몸이 무겁던 것이 문득 가벼워지는 자는 濕과 汗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濕이 비록 나오긴 했지만 陽을 또한 傷하여 오래되면 반드시 몸에 쥐가 나고 가슴에 痛症이 생긴다. 허리 윗쪽으로는 汗이 나는데 아래쪽으로는 汗이 없는 것은 陽이 위로는 通하고 아래로는 通하지 않는 것인데 따라서 허리가 뻣기는 것은 마치 물건이 皮膚中에 있는 것과 같다. 그 病이 極烈하여 汗이 나는 자는 胸中에 막혀 음식을 먹지 못하고 皮膚에 멍쳐 몸이 무겁고 心에 鬱滯되니 답답하고 下焦에 막히니 小便不通이 생긴다. 病이 나아가고 물러가고

가 가볍고 심하고 이것은 대개 水氣가 心을 傷한 것이다. 그러므로 黃汗이라 하였다. 桂枝 黃芪는 역시 陽을 行하게 하고 邪氣를 흩어지게 하는 作用을 하니 여기에 뜨거운 죽을 먹어 汗을 내는 것이 좋으니 이것은 옮겨진 邪氣를 發하는 治法이다.”라 하여 黃汗이 鬱熱으로 陽氣가 上下로 相通되지 못하여 胸中痛, 小便不通, 腰以上汗出, 腰以下無汗등 의 여러 症狀이 생긴다고 하였다.

方後에 보면 약을 복용 후 뜨겁고 연한 죽(粥)을 마셔 약간 汗이 나게 해야 濕과 汗이 나가면서 陽이 손상받지 않고 黃汗의 허리이상에서 汗이 나고 허리이하에서 汗이 안 나는 水濕이 停聚되어 衛陽이 능히 運行되지 않는 증상은 服用後 別레나 개미가 기어가는 듯하며 汗이 온몸에 두루 나서 病이 낫게 되며, “溫服取微汗, 若不汗, 更服”이라 하여 이 處方의 약을 服用한 뒤 水濕의 邪氣가 汗이 나아 풀어지며, 안되면 재복하라고 하였다. 唐宗海는 本方에 제시된 黃汗의 變證이 많으나 모두 發黃의 根本이 鬱病에 있으며 汗이 透徹하지 못하여 鬱熱이 外達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이 處方證의 黃汗은 汗出不止하고 허리 위쪽으로는 汗이 나고 아래로는 汗이 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본 處方을 利用하여 調和營衛하고 逐濕走表하고 助陽散邪로 治療해야 한다.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又名:桂薑棗藜黃辛附子湯)은 原文에 氣分, 心下堅, 大如盤, 邊如旋杯, 水飲所作을 主治한다고 하였다. 氣分에 대해, 陳靈石은 心腎交病으로 上不能降, 下不能昇하여 오래 되어 鐵石과 같이 단단해진것이라 하였고, 黃은 下焦陰邪가 陽位를 逆한 것으로 土敗水侮한 것이라 하였고, 譚은 陽氣不行하여 寒氣不散한 所致로 수음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尤도 寒氣乘陽之虛 而結于氣라 하여 이들은 陽虛와 寒邪로 인하여 氣分病이 생성된다고 하였고, 水飲이 原因으로 본 醫家는 丹波元堅은 停積으로 水飲이 氣에 搏結하면 氣分이 結하여 氣分이라 하였고, 李는 氣分病이라는 것은 바로 水寒의 邪氣가 陽氣의 虛한 틈을 타고 氣分에 病이 든 것으로, 즉 이른바 “水飲所作”의 氣分病이라고 하였다. 桂枝去芍藥加麻黃

細辛附子湯은 溫經散寒 通陽化氣하는 處方으로 處方구성으로 볼때도 水飲과는 相關이 없는 듯하다. 그리고 校勘으로 보아도 徐, 尤, 陳, 黃, 曹注本에는 모두 “水飲所作” 四字가 없으므로, 本方은 水飲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맞다고 본다. 譚日強은 만약 水飲이 있는 心下堅이라면 下條의 枳朮湯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은 桂枝 3兩, 生薑 3兩, 甘草 2兩, 大棗 12枚, 麻黃, 細辛 各 2兩, 炮附子 1枚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麻黃, 桂枝, 生薑으로써 그 上部를 치고, 附子, 細辛으로써 그 下部를 공격하며, 甘草, 大棗로써 中焦를 補하여 그 氣를 運化시키면, 거의 上下之氣가 交通하여 病이 나올 수 있다. 이른바 大氣가 一轉하면, 그 結한 것이 곧 흐트러진다. 李克光은 본 방증이 陽虛飲滯의 寒痞證으로 溫陽散寒, 通利氣機, 宣飲散痞의 治法을 써야 한다고 하여, 麻黃, 細辛의 辛溫한 性味는 外寒을 흐트리고 久寒을 除去하고 桂枝, 甘草의 辛甘한 性味는 衛表의 陽氣를 通하게 하며, 桂枝, 甘草, 生薑, 大棗의 溫性은 中陽을 運化하여 上下로 轉輸하여 消痞行水케 하며, 桂枝, 附子, 細辛의 溫性은 腎陽을 運化하여 寒凝을 흐트린다. 陽氣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면, 陰寒이 소실되어 營衛가 調和되고 大氣가 運轉하게 되니 그 病이 저절로 낫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方後에 “當汗出如蟲行皮中即愈”라고 한 것은 陽氣가 通達하면, 寒飲이 마땅히 흐트러져서 營衛의 運行이 暢通하게 되고 陰陽이 서로 順接하게 된다.

枳朮湯은 原文에 心下堅, 大如盤, 邊如旋盤, 水飲所作을 주치한다고 되어 있다. 本方의 證은 桂枝去芍藥加黃辛附湯과 같은데, 尤在涇은 氣分과 水飲所作的 差異로 氣는 無形으로 辛甘으로 發散하고, 水는 有形으로 苦泄한다고 하였고, 譚日強은 心下는 胃部位로 胃에 水飲이 있어 心下堅하며, 邊如旋盤는 邊圓中空하다는 것으로 이는 水飲所作이므로, 寒氣로 發生한 것이 아니므로 桂枝去芍藥加黃辛附湯을 쓰지 않고, 枳朮湯으로 攻堅消痞, 健胃制水한다고 하였다. 李克光은 이 處方證의 病因病機가 일시적인 水氣의 停滯로 脾虛胃弱으로 運化가 不及하여 水飲이 停聚하고, 氣機가 不暢하여

된 脾虛氣滯陰結의 痞證으로 氣滯가 脾虛證보다 重하다고 하였으며, 桂枝去芍藥加黃辛附湯과 차이점은 本方證은 脾胃自病에 속하고, 桂枝去芍藥加黃辛附湯의 表證을 具備하지는 않고, 따라서 治療는 裏證으로부터 착수하니 즉, 行氣散結, 健脾利水을 法으로 한다고 하였다. 枳朮湯은 枳實 7枚, 白朮 2兩으로 구성되어 攻堅消痞, 健胃制水하며, 藥을 服用한 後에 水氣가 消散되면, 痞堅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方後注에 “腹中軟即當散也.”라고 하였다.

防己黃芪湯은 原文에 風水, 脈浮身重, 汗出惡風者를 主治한다고 하였다.

脈浮는 表病을 말하고, 汗出惡風은 表가 虛한 것이다. 風傷表하여 衛陽이 不固하므로 汗出하며 惡風이 생기는 것이다. 身重에 대해 陳은 土虛勝濕 濕傷經絡, 趙는 水客分肉이라 하였고, 역는 其狀如腫者를 볼 때 手足을 눌러 보아 陷沒되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如腫’이며 결국 浮腫이 아니라 하였다. 本方은 같은 《金匱要略》의 痙濕喝病篇에는 “風水”가 “風濕”으로 되어 있고, 《脈經》에는 “風水, 其脈浮, 浮爲在表, …, 病者但言下重, 故從腰以上和, 腰以下當腫及陰, 難以屈伸, 防己黃芪湯主之.”로 되어 있으며, 또한 徐林은 越婢湯條에서 本條의 症인 身重은 濕多이고, 越婢湯의 一身悉腫은 風多氣強이라 하였고, 黃은 一身悉腫이 水脹於經絡이라 한 것으로 볼 때, 防己黃芪湯은 水보다는 濕이 表(經絡)에 存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越婢湯은 완전한 水腫으로 輕重의 差異가 있다.

本方은 防己 1兩, 黃芪 1兩 1分, 甘草 半兩炙을 挫하고 매번 服用時에 五錢을 欸하여 生薑四片, 棗1枚를 물에 달여 같이 먹도록 하고 있다. 결국 防己, 黃芪, 白朮, 生薑, 大棗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防己는 肺, 膀胱經에 入하여 苦辛한 味로서 降泄, 發散을 兼하여 水氣를 除去하고, 通腠理하며, 黃芪는 脾, 肺經에 入하여, 補氣行水하는 藥으로, 衛陽을 補한다. 白朮은 補土勝濕하는 藥으로 分肉의 水濕을 除去한다.

원래, 脈浮汗出惡風은 風傷衛한 症으로 桂枝湯證이다. 이 症狀에 一身重 症狀 한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이는 風水病으로, 陳은 단지 發表祛風을 할 일이 아니고, 補虛行水를 해야 하는 것으로 防己를 重用하여 走而不遂하게 하여 上行下出, 外通內達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여는 桂枝가 적합치 않다고 하였다.

腹痛에 대해서는 趙는 陰陽氣窒 不得乘降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고, 《痙濕喝病篇》에서는 “腹痛者加芍藥”은 없고, 方後加味에 “胃中不和者, 加芍藥三分”으로 되어 있는데, 注家들에 이에 대한 言及은 거의 없는 편이다.

V. 結 論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方》에 나타난 10개의 處方의 病證을 病理的으로 鑑別하여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越婢湯은 發汗行水, 清泄鬱熱하여 風水挾熱의 症을 治療하는데, 越婢는 發越脾氣한다는 의미로 風水가 表에 있으므로 惡風, 脈浮하게 되고, 風邪가 肺氣를 壅塞시켜 氣機가 失調되어 氣가 水로 化하지 못하므로 一身悉腫한다. 無大熱과 汗出함은 表에 熱이 甚하지 않고 內部에 熱이 있어 熱의 熏蒸으로 汗出하며, 不渴은 或口渴할 수도 있다.

2. 防己茯苓湯은 皮水表虛의 症을 治療하는데, 脾肺氣虛로 衛陽이 虛滯되어 水濕을 運化와 敷布시키지 못하고, 水濕의 邪氣가 皮膚에 侵入하여 病이 된 것이다.

3. 甘草麻黃湯은 皮水에 裏熱을 挾雜하지 않은 證을 治療하는 것으로 原文의 ‘裏水’는 肌肉의 水分을 가리키므로 皮水의 概念에 該當되며 和中補脾 宣肺利水한다.

4. 麻黃附子湯은 足少陰腎의 陽虛로 능히 化氣行水를 하지 못하여, 水氣가 泛濫하여 浮腫이 된 正水症을 治療한다. 治法은 溫經發汗하여 腎陽을 助陽해야 한다. 杏子湯은 處方內容은 없는데 內水濕而外風寒에 挾熱者는 麻杏甘石湯을 不挾熱者는 甘草麻黃湯加杏子로 생각된다.

5. 蒲灰散은 通利小便하는 處方으로 厥而皮水者를 主之하는데, 厥의 原因이 水로 인해 생긴 것으로

水氣가 皮膚에 있어 陽氣不能外達한 것으로 利小便으로 水를 去하여 陽氣를 通하면 消腫하면서 厥이 스스로 낫는다.

6. 黃芪芍桂苦酒湯은 調和營衛, 祛散水濕하는 處方으로 營衛失調의 黃汗證에 適用되며, 黃汗은 汗이 나는데 목욕하러 들어가 汗液의 排泄이 막혀 水熱이 肌表에서 서로 結滯되어 形成된다.

7. 桂枝加黃芪湯은 黃汗營衛不和로 胃氣虛滯와 黃疸病에 表證을 兼한 것을 治療하는 處方으로 黃病 初期에 濕이 肌表에 鬱滯되고 鬱熱이 甚하지 않으며 汗出이 완전하지 않고 겨우 허리이상에 汗이 나고 아래는 汗이 없으며 濕이 盛하여 陽이 鬱滯되는 것이 特異한 점이다. 그러므로 이 처방은 解肌하고 營衛를 調和하여 陽을 通하게 하고 濕을 몰아낸다.

8.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又名:桂薑草棗黃辛附子湯)은 溫經散寒 通陽化氣하는 處方으로 氣分, 心下堅, 大如盤, 邊如旋杯, 水飲所作을 主治하는 處方으로 各 注家의 見解와 校勘, 處方構成을 살펴볼 때 氣分은 陽氣不行하여 寒氣不散한 所致로 水飲과는 관계가 없으며, 原文의 水飲所作은 잘못된 것이다.

9. 枳朮湯은 攻堅消痞, 健胃制水하는 處方으로 水飲이 있는 心下堅에 쓴다. 本方의 證은 桂枝去芍藥加辛附湯과 같은데, 桂枝去芍藥加辛附湯은 氣分이고 枳朮湯은 水飲所作한 것으로 氣는 無形으로 辛甘으로 發散하고, 水는 有形으로 苦泄한다.

10. 防己黃芪湯은 風水汗出의 表虛를 治하는 處方으로 風水, 脈浮身重, 汗出惡風者를 主治한다고 하였고, 風傷表하여 衛陽이 不固하므로 汗出하며 惡風하며, 身重은 濕多로 土虛勝濕 濕傷經絡이고, 越婢湯의 一身悉腫은 완전한 水腫으로, 防己黃芪湯은 水보다는 濕이 經絡에 存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越婢湯은 完全한 水腫으로 輕重의 差異가 있다.

參 考 文 獻

1. 李克光, 張家禮: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

出版社, pp460-483, 1995.

2. 陳修園：金匱要略淺註，太平書局出版，1975.
3. 譚日強：金匱要略淺述，人民衛生出版社，pp261-272, 1989.
4. 李克光：金匱要略，人民衛生出版社，1989.
5. 李東建：國譯金匱要略，書宛堂，pp204-213, 1996.
6. 李克光 外：金匱要略講義，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9.
7. 成都中醫學院：金匱要略選讀，上海科學技術出版社，pp124-130, 1981.
8. 王建平，史定文 外：金匱要略自學輔導，中醫古籍出版社 pp123-127, 1988.
9. 杜雨茂，張聯惠：金匱要略闡釋，醫聖堂，pp408-425, 1994.
10. 蔣先德：金匱要略，春秋出版社，pp134-139, 1988.
11. 廖厚澤：傷寒金匱證詮解，中醫古籍出版社，1996.
12. 趙以德，周揚俊：金匱玉函經二註，1990.
13. 陳修園：金匱方歌括，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0.
14. 文棣 校注：金匱要略方論，中國書店出版，pp77-85, 1993.
15. 楊宏仁：金匱要略重編，世一書局，pp177-200, 中華民國 72년 12월.
16. 何任 外：金匱要略語譯，人民衛生出版社，1990.
17. 楊向輝：金匱要略注釋，國立編譯館，正中書局印行.
18. 呂志杰：金匱雜病論治全書，中醫古籍出版社，pp303-322, 1995.
19. 宋書功：金匱要略廣注校註，人民衛生出版社，pp.161-180, 1994.
20. 中國中醫研究院 編：正統金匱要略，醫學研究社，1983.
21. 李文瑞 主編：金匱要略湯證論治，中國科學技術出版社，1993.
22. 魏念庭：金匱要略方論本義，人民衛生出版社，北京,pp.204-212 1997